

서울국제 사랑영화제

Seoul International Agape Film Festival

SIAFF 자료집 2020

www.siaff.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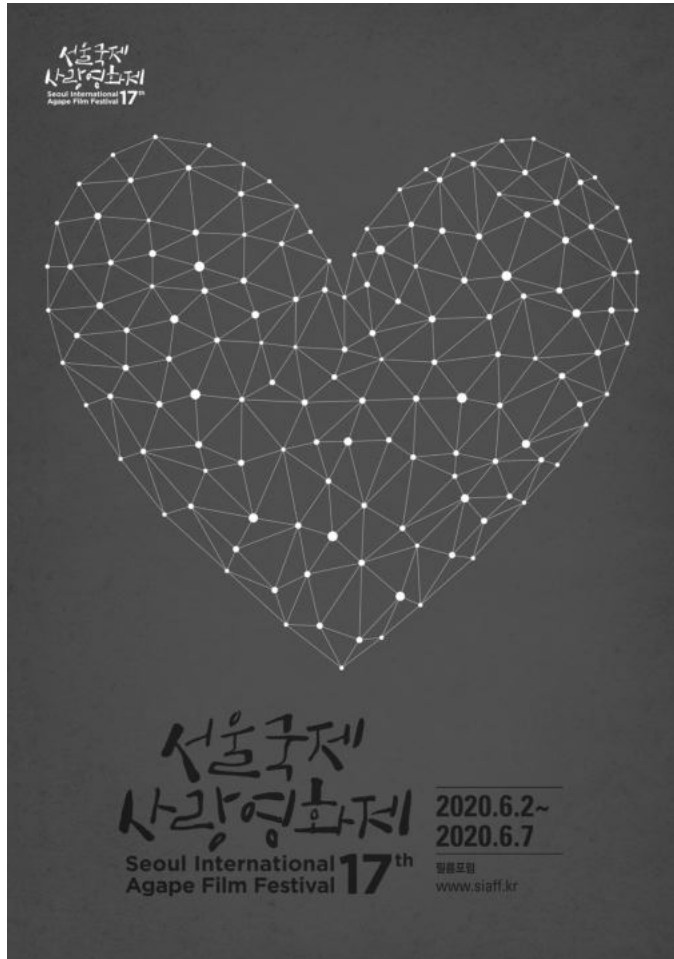
목차

04	1. 제17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04	SIAFF 2020 포스터
05	SIAFF 2020 사진
08	SIAFF 2020 상영시간표
09	2. 상영작 소개
25	3. 시네리뷰 & 시네토크
121	4. 필름포럼 소개
122	5. 문화선교연구원 소개

SIAFF 2020
포스터

주제 <이음>

2020년, 갈등과 분열이 일상화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자유와 평화, 화해와 일치의 메시지를 통해 세대 간, 계층 간, 성별 간, 인종 간 뿌리 깊게 박힌 차별과 편견,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대화와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17회
서울국제
사랑영화제
사진

기자간담회



개막식



영화제 기간



폐막식



**SIAFF
2020
상영
시간표**

6월 2일(화)		
상영작		등급 min
19:00	개막식 (이대ECC상성홀)	
20:00	개막작 : 부티플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	전체 109

6월 3일(수)					
1관	상영작	등급 min	2관	상영작	등급 min
11:00	페인티드 버드	청불 169	13:00	첫사랑	12 52
14:20	조선의 별 박 에스더가 남긴 선물 6V 이재선	전체 63	16:00	기도하는 남자	15 95
17:00	헤나랜드	전체 85	19:30	평화와 평온	12 81
19:00	부티플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 59 성현	전체 109			

6월 4일(목)					
1관	상영작	등급 min	2관	상영작	등급 min
11:00	아담	12 98	13:30	데칼로그 IV	12 58
13:00	필즈 굿 맨	15 92	16:30	바다로 가자	전체 76
16:00	기도하는 남자 5B 전도사닷컴	15 95	19:30	산티아고의 흰 지팡이	전체 98
19:00	백 년의 기억 6T KPI	전체 112			

6월 5일(금)					
1관	상영작	등급 min	2관	상영작	등급 min
11:00	브레이크쓰루 6V 강찬구	전체 92	13:30	평화와 평온	12 81
14:30	첫사랑	12 85	16:00	조선의 별 박 에스더가 남긴 선물	전체 63
15:50	히든 라이프	15 79	19:00	헤나랜드 6T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전체 85
19:30	시네포럼 : Untact 시대, Contact 하다	120			

6월 6일(토)					
1관	상영작	등급 min	2관	상영작	등급 min
11:00	데칼로그 IV 5B 장성일	12 58	11:20	브레이크쓰루	전체 116
13:40	부티플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	전체 109	13:40	첫사랑	12 52
16:10	평화와 평온	12 81	15:00	엠마누엘	12 80
18:00	히든 라이프 6V 이무영	15 174	17:00	아담	12 98
			19:00	페인티드 버드	청불 169

6월 7일(일)					
1관	상영작	등급 min	2관	상영작	등급 min
13:30	산티아고의 흰 지팡이 6V 이종은	전체 98	14:00	필즈 굿 맨 6V 윤성은	15 92
16:20	바다로 가자	전체 76	17:00	백 년의 기억	전체 112
19:00	폐막식, 폐막작 : 엠마누엘	12 80			

5B 스페셜 이벤트 **6V** 관객과의 대화 **6T** 시네테크

상영작 소개

1

영화제목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 A Beautiful Day in the Neighborhood 개막작
행사명	국민일보 마이트웰브와 함께하는 시네렉쳐 / 시네리뷰 & 시네토크 25page
영화소개	마리엘 헬러 Marielle Heller / 미국, 중국 / 2019 / 109분 / 칼라 / 드라마
관람가	전체관람가
프리미어	International Premiere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자인 '프레드 로저스'와 '톰 주노드'의 실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1998년 어느날 에스콰이어 잡지사 기자 로이드 보겔(톰 주노드)은 30년째 '미스터 로저스의 이웃'을 제작하고 진행해 온 프레드 로저스를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취재하는 대상에 관해 알려진 정보뿐 아니라 그 이전까지 낱낱이 파헤쳐 기사를 쓰는 것으로 유명했던 로이드가 프레드 로저스의 진정성 있는 삶의 자세를 통해 감동받고 변화되는 모습은 진실한 리더를 갈망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을 준다.

상영작 소개

2

영화제목	엠마누엘 Emanuel
	폐막작
영화소개	브라이언 아이비 Brian Ivie / USA / 2019 / 80분 / 칼라 / 다큐멘터리
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프리미어	International Premiere



2015년 미국 흑인사회를 대변하며 긴 역사를 가진 엠마누엘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교회에 모여 성경공부를 하던 흑인 성도들은 문을 열고 들어온 백인 청년 딜란 루프(Dylann Roof)를 반갑게 맞이했다. 하지만 그는 총을 꺼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난사했고, 그날 9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 사건은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알려졌고 많은 이들이 혐오 범죄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브라이언 아이비 감독은 이 사건 후 살아남은 생존자들과 희생자 유가족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았다. 남겨진 것은 상처와 고통뿐이지만 그들은 용서에 관해 이야기한다. 끝없이 반복되는 혐오와 범죄 속에서 그들의 용기와 믿음은 사회에 희망을 선물하고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힘이 된다.

상영작 소개 3

영화제목	기도하는 남자 Pray 아가페 초이스
행사명	전도사닷컴과 함께하는 생생 라이브토크 / 시네리뷰 & 시네토크 29page
영화소개	강동헌 Kang Donghun / 한국 / 2018 / 95분 / 칼라 / 드라마
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지독한 경제난 속에서 개척교회를 운영 중인 목사 태욱(박혁권)은 설상가상으로 아내 정인(류현경)으로부터 장모(남기애)의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태욱과 정인은 각기 다른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믿음에 어긋나는 상상 속에서 그들은 처절하게 갈등하게 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보여지는 인간의 갈등이 펼쳐진다.

상영작 소개

4

영화제목	필즈 굿 맨 Feels Good Man 아가페 초이스
행사명	ميم(Meme)으로 소통하기 / 시네리뷰 & 시네토크 37page
영화소개	아서 존스 Arthur Jones / 미국 / 2019 / 92분 / 칼라 / 다큐멘터리
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프리미어	Internaional Premiere



<필즈 굿 맨>은 밈(meme, 인터넷상에 재미난 말을 적어 넣어서 다시 포스팅한 그림이나 사진)으로 유명해진 캐릭터 ‘페페’가 온라인 공간에서 이용자에 의해 끝없이 재생산되어 원작의 의미를 잃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페페의 원작자 맷 퓨리는 자신의 캐릭터가 혐오와 테러의 상징으로까지 변질되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자신의 SNS를 통해 페페의 죽음을 공표한다. 익명성 뒤에 숨은 다수의 사용자는 계속해서 페페를 비도덕적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도덕성을 외면한 다수와 홀로 맞서 싸우는 맷 퓨리의 모습은 위태롭고 외로워 보인다.

상영작 소개

5

영화제목

허니랜드 Honeyland

아가페 초이스

행사명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함께하는 시네토크 / 시네리뷰 & 시네토크 41page

영화소개

타마라 코테브스카, 류보미르 스테파노브 Tamara Kotevska,
Ljubomir Stefanov / 북마케도니아 / 2019 / 85분 / 칼라 / 다큐멘터리

관람가

전체관람가



마케도니아의 어느 산골 마을에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아티제는 매일 돌산을 넘으며 자연이 허락하는 만큼의 소산물을 얻는다. 지루하지만 능숙한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이 펼쳐지고 그녀가 벌을 다루며 꿀을 얻는 방식에서 조화롭게 사는 삶의 태도를 목격하게 된다. 그녀의 옆으로 새로운 이웃들이 찾아온다. 그들은 아티제의 지혜와 조언에 따라 그녀가 고수하는 전통적 방식을 배우려 노력하지만 그들의 욕망에 비해 자연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결국,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은 대립하고 아티제의 꿀벌마저 위기에 놓인다.

상영작 소개

6

영화제목

히든 라이프 A Hidden Life

아가페 초이스

행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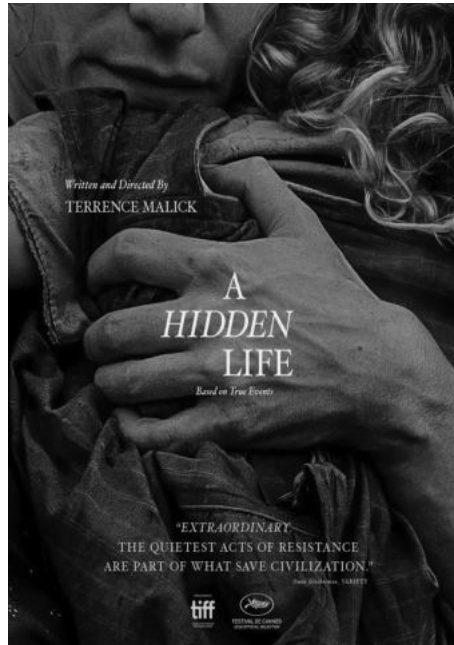
테렌스 맬릭 감독의 영화 세계 / 시네리뷰 & 시네토크 49page

영화소개

테렌스 맬릭 Terrence Malick / 미국, 영국, 독일 / 2019 / 174분 / 칼라 / 드라마

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테렌스 맬릭 감독의 신작 <히든 라이프>는 오스트리아의 시골 농부 프란츠(오거스트 디엘)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와 그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역경을 그려낸다. 가톨릭 신자였던 프란츠는 목가적 시골 마을에서 자연의 규칙에 따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간다. 마을에는 전쟁에 관한 소문이 들려오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다. 전쟁을 대비한 훈련에 징집되어 총칼을 휘두르고 선전 영상을 보며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프란츠 내면의 갈등이 시작된다. 한 개인의 도덕적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흔들어놓는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끊임없이 고뇌하는 그의 모습은 신념의 숭고함을 일깨워준다.

상영작 소개

7

영화제목	조선의 별, 박 에스더가 남긴 선물 미션 초이스
행사명	<조선의 별, 박 에스더가 남긴 선물> 관객과의 대화 / 시네리뷰 & 시네토크 57page
영화소개	이제선 Lee Jaesun / 한국 / 2020 / 63분 / 칼라 / 다큐멘터리, 드라마
관람가	전체관람가
프리미어	World Premiere



로제타 홀 선교사의 도움으로 서양 의학을 공부하고 미국 볼티모어여자의과 대학을 졸업(1900년 5월 21일)한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 에스더(본명 김정동)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된 후 조선으로 돌아온 박 에스더는 조선 여성들을 보살폈고 미신과 잘못된 건강 상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교육하고 기독교인으로 복음도 함께 전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한 박 에스더가 결핵으로 사망하자 그를 따랐던 로제타 홀 선교사의 아들 셔우드 홀 선교사는 조선 땅에 만연한 결핵을 퇴치하고자 우리나라 최초로 크리스마스실을 발행, 판매기금으로 결핵 전문병원을 세워 결핵 퇴치에 공헌했다.

상영작 소개

8

영화제목

브레이크쓰루 Breakthrough

미션 초이스

행사명

강진구의 영화극장 / 시네리뷰 & 시네토크 65page

영화소개

록산 도슨 Roxann Dawson / 미국 / 2019 / 116분 / 칼라 / 드라마

관람가

전체관람가



어릴 적 미국 중산층 가정에 입양된 존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춘기에 들어선 존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혼란을 겪으며 어머니, 조이스와의 관계가 불편하게만 느껴진다. 존은 얼음이 언 강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조이스는 전적으로 신에게 의지하여 존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그녀의 기도에 동참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브레이크쓰루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는 믿음을 가질 때 경험하는 기적에 관해 이야기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선택받아야 하는지 묻는다.

상영작 소개

9

영화제목	산티아고의 흰 지팡이 Buen Camino 필름포럼 초이스
행사명	<산티아고의 흰 지팡이> 관객과의 대화 / 시네리뷰 & 시네토크 71page
영화소개	이종은 Lee Jongeun / 한국 / 2019 / 98분 / 칼라 / 다큐멘터리
관람가	전체관람가



1급 시각장애인으로 사물의 어렵פות한 형상만을 볼 수 있는 재한과 비인가 대학 안 학교에 다니며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다희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길고 험난한 순례길로 여행을 떠난다. 앞을 볼 수 없는 장애가 있음에도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열정을 지닌 재한에게는 순례길의 종착지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대성당’ 광장에서 플라멩고를 추는 꿈이 있다. 한편, 다시 돌아갈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는 다희는 순례 길에서 재한과 갈등하지만 표현의 방식과 생각의 차이에도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두 사람의 동행이 인상 깊다.

상영작 소개

10

영화제목

아담 Adam

필름포럼 초이스

영화소개

마리암 투자니 Maryam Touzani / 이란 / 2019 / 98분 / 칼라 / 드라마

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프리미어

Korea Premiere



아블라는 남편과의 사별 후 8살 딸, 와르다와 함께 카사블랑카에서 빵집을 운영하며 살아간다. 사미아는 혼전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과 고향을 떠나 카사블랑카에서 일자리와 지낼 곳을 구하던 중 아블라의 집을 찾아가게 된다. 아블라는 그런 사미아를 냉정히 거절하지만, 위험한 길가에서 밤을 지새우는 모습을 보고 방을 내어준다. 이들은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간다. 이 영화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을 통해 약자의 삶을 대변하고 연대의 가치를 제시한다.

상영작 소개

11

영화제목 **페인티드 버드 The Painted Bird**

필름포럼 초이스

영화소개 바츨라프 마르호울 Vaclav Marhoul /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 2019 / 169분 / 칼라 / 드라마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저진 코진스키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페인티드 버드>는 인간의 폭력성을 이야기하는 영화이다. 2차 세계대전 시기 동유럽 시골 마을에 혼자 남겨진 유대인 소년이 떠돌아다녔던 여정을 유니버시스식 구성으로 담았다. 각각의 사건과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묘사는 스크린을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처절하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악자인 소년에게 폭력을 가하고 소년은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그럴수록 그가 감내해야 할 고통은 커져만 간다. 흑백 화면 속 소년의 육체는 내면의 상처와 함께 성장하고 상처는 분노로 자리 잡아간다.

상영작 소개

12

영화제목

데칼로그 4 Dekalog 4

특별전 1: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특별전

행사명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특별전 강론: 데칼로그 4-네 부모를 공경하라
/ 시네리뷰 & 시네토크 79page

영화소개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Krzysztof Kieslowski /
폴란드, 독일 / 1989 / 58분 / 칼라 / 드라마

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대학생 양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고 현재 아버지 미할과 단둘이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숨겨두었던 어머니의 편지를 읽게 된 그녀는 미할이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혈연이라는 연결고리가 없는 부녀관계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미할을 보던 시선으로부터 양카를 해방한다. 더는 그를 아버지로서뿐만 아니라 한 남성으로서 까지 가능성을 열고 바라보게 된 그녀는 부녀관계에 재정을 시도한다. 이들 부녀의 갈등은 절망과 종결로 치닫는듯하지만 결국 새로운 부활을 맞이한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키에슬로프스키는 부모와 자식에 관계가 과연 혈연이라는 고리만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인지 자문한다.

상영작 소개

13

영화제목

첫사랑 First Love

특별전 1: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특별전

영화소개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Krzysztof Kieslowski /

폴란드 / 1974 / 52분 / 칼라 / 다큐멘터리

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프리미어

Korea Premiere



이 다큐멘터리는 70년대 폴란드 사회 속 10대 커플이 혼전임신을 하며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당시의 폴란드의 문화 속에서 어린 부모가 되어가는 그들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정도로 연출과 카메라의 움직임이 정교하다. 그들 주변에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순수한 마음의 두 연인은 아이를 기다리며 자신이 꿈꾸는 독립을 얻기 위해 새로운 삶을 준비해간다. <첫사랑>은 그런 두 사람이 크고 작은 시련에 맞서며 성숙하는 과정을 개입 없이 관찰자의 시선으로 담고 있다.

상영작 소개

14

영화제목

평화와 평온 Peace and Quiet

특별전 1: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특별전

영화소개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Krzysztof Kieslowski /

폴란드 / 1980 / 81분 / 칼라 / 드라마

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프리미어

Korea Premiere



감옥에서 출소한 주인공 안토니 그라락은 연인의 배신과 가족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갓 얻은 자유로 순수한 열정과 기대에 부푼다.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던 그는 건설 현장에서의 새로운 일자리와 결혼으로 인생의 안정기에 접어든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일하던 현장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하며 그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부패한 현장소장은 그라락과 동료들을 범인으로 지목하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해 파업한 동료들은 오히려 그라락이 자신들을 밀고했다고 오해한다. 이 영화는 한 노동자의 불운한 삶을 통해서 인간이 그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복잡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상영작 소개

15

영화제목	백 년의 기억 Korea, A Hundred Years of War 특별전 2: 이음 특별전
행사명	한반도평화연구원과 함께하는 KPI 시네토크 / 시네리뷰 & 시네토크 81page
영화소개	피에르 올리비에 프랑수아 Pierre-Olivier Francoi / 프랑스 / 2019 / 174분 / 칼라 / 다큐멘터리
관람가	전체관람가



<백 년의 기억>은 백 년이라는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통해 현재 한반도의 외교적 위치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이념적으로 다른 두 국가의 탄생과 역사를 비교하고 대조한다. 이 과정에서 태권도에도 주축이 되는 개념들의 소개가 한반도 분단 현실에 서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등장한다. 제삼국가인 프랑스 감독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지양하며 더욱 객관적인 시선에서 각 진영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들을 소개한다. 또한, 현재 우리가 어떤 사회적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 영화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될 듯하다.

상영작 소개

16

영화제목

바다로 가자 Forbidden Fatherland

특별전 2: 이음 특별전

영화소개

김량 Kim Lyang / 한국 / 2018 / 76분 / 칼라 / 다큐멘터리

관람가

전체관람가



아버지는 루게릭병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다. 젊은 시절 전쟁을 겪고 북한의 고향을 떠나 남한에서 가정을 이루었으며 아버지에게 고향과 전쟁이란 영광의 상처와 같다. 아버지의 굳어진 얼굴 뒤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전쟁의 아픔이 남아있다. 감독은 아버지를 아는 동향민들과 아버지와 같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한다. 그들에게 고향이란 괴로운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그 기다림의 끝에 그들이 만나는 것은 죽음밖에 없을까?

1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
A Beautiful Day in the Neighborhood

씨네렉처
with
국민일보
마이트웹브

복음이 삶과 만날 때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A Beautiful Day in the Neighborhood)는 미국의 어린이 프로그램 <Mister Rogers' Neighborhood>의 제작자 겸 진행자였던 프레드 로저스 목사의 삶을 다룬 영화다. 2편의 영화 <The Diary of a Teenage Girl> (2015), <Can You Ever Forgive Me?>(2018)를 만든 마리엘 헬러(Marielle Heller)가 감독을, Hollywood's Everyman이라 불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배우 톰 행크스(Tom Hanks)가 프레드 로저스 목사 역을 연기했다. 에스콰이어지 기자였던 톰 주노드(Tom Junod)와의 인터뷰에 얽힌 일화를 바탕으로 프레드 로저스의 삶과 영향력을 엿보는 방식으로 영화는 전개된다.

어느 날, 비판적인 관점에서 인터뷰하고 기사를 쓰는 로이드에게 프레드 로저스를 취재하라는 업무가 배정된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수십 년간 국민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그를 영웅(Hero)이라는 꼭지에 들어갈 인물로 인터뷰하라는 것이었다. 평소에 인터뷰한 대상을 비판적으로 기사화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그는 이번에도 프레드 로저스의 삶 이면에 담긴 어둠을 조명하려고 한다. 그런데, 시작부터 꼬인다. 프레드 로저스는 여타의 다른 인터뷰이와 달랐다. 로이드의 얼굴에 난 상처의 사연을 묻는 것부터 그의 아내와 아이의 안부까지 챙긴다. 인터뷰라는 '일'로 접근하는 로이드와 달리 프레드 로저스는 '만남'으로 로이드를 대한다. 그럴수록 로이드는 국민적 영웅이자 친절한 신사인 이 남자의 삶에 담긴 이중성을 파헤쳐 그의 실체를 보여주고자 한다. 로이드에게 있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큰 나무에 깊게 드리운 그림자처럼 삶에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걸 찾아내는 것이 기자의 일이라는 게 로이드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온 동력이었다. 그런 면에서 프레드 로저스는 더 의심스러운 인물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한 인물이 수십 년간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던 말인가. 그러나 이야기는 거꾸로 흘러간다. 타인의 그늘을 찾아내느라 외면해왔던 로이드 자신의 그늘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다행인 것은 이 난처한 삶의 시기에 프레드 로저스라는 좋은 친구가 곁에 있었다는 점이다. 평생에 걸쳐 어린이들을 좋은 어른의 길로 안내해줬던 것처럼 말이다.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는 프레드 로저스가 목회자임을 영화 속에서 밝히진 않는다. 그렇다고 그가 평생에 걸친 사회적 영향력의 막중한 무게를 견뎌내는 힘이 신앙에 있음을 숨기지도 않는다. 유명인으로 사는 삶과 실제 생활인으로 사는 삶을 잇는 가교는 그의 경건 생활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면 기상해 성경을 읽고, 가족과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동네수영장에 가서 수영하고, 오후 9시 30분이면 잠자리에 들었다. 술과 고기는 입에 대지 않았으며, 평생 65kg의 체중을 유지했다. 침묵과 경청을 중요하게 생각해 영화 속 로이드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방송에서도 화면을 통해 어린이 시청자들과 60초간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예전 학자 제임스 스미스(James K. A. Smith)는 말한다. 습관이 영성이라고. 의례(ritual)는 우리의 욕망을 형성하고 변형시키는, 사랑을 만들어 내는 실천이라고. 그는 가장 대중적인 매체인 TV의 스타였음에도 금홀과 절제로 자신을 단련해 간 구도적 영성가였다. 실제 그는 현대에 영성을 대중화시킨 것으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 속 프레드 로저스의 모습에는 기독교 영성에서 다루지는 중요한 요소들이 곳곳에 잘 드러나 있다.

우선 그는 인간의 감정을 중요시했다. ‘화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너무 화가 나서 깨어버리고 싶을 때, 온 세상이 잘못된 것 같고 모든 일이 잘못된 것 같을 때 어떻게 하죠?’라고 인형의 목소리를 빌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알려준다. 어린이 또한 자신의 나이에 맞는 감정의 결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대하는 기본자세임을 그는 강조한다.

두 번째로 ‘지금-여기’(Here and Now)의 삶에 헌신했다. 로저스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시간은 ‘오늘’임을 인식하며,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했다. 자신을 찾아 방송국에 온 장애아와 그 가족을 귀빈으로 대하고, 유명인으로서 사진의 피사체가 되기보다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을 위한 사진사가 되어 준다. 누구든지 프레드 로저스를 만나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세 번째로 그는 ‘이야기’의 힘을 믿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서사가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남의 서사를 동경하며 살아간다. 그런 세상 속에서 프레드 로저스는 각 사람에게 깃들여 있는 고유의 서사를 불러낸다. 자신을 취재하는 기자 로이드의 얼굴 상처를 예사롭게 보지 않고, 로저스는 묻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질문을 따라 로이드는 결국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않았던, 아버지와의 불화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를 ‘처음’ 만난 로저스에게 털어놓는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 속에 종이 위에 활자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접근은 증발하고, 깨어진 관계로 신음하는 중년 남자와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의 우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끝으로 프레드 로저스의 삶에는 진정성이라는 렌즈로 볼 때만 이해할 수 있는, 접착력이 꽤 강한 고지식함이 있다. 그는 자신이 연기하는 대니얼이라는 인형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는다. “대니얼은 프레드예요. 프레드가 대니얼이고요.”라고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말한다. 본인을 영웅이라고 생각하나? 는 로이드의 인터뷰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다시 로저스 아저씨는 영웅이냐는 후속 질문에 그는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한다. 재차 프레드와 방송에 나오는 로저스 아저씨의 캐릭터를 분리하려는 로이드의 질문에 프레드 로저스는 응답하지 않는다. 해명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말이다. 분열된 세상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우선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세상의 깨어진 신음을 들으며 온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프레드의 삶은 한발 앞선 인도자의 전형일 따름이다.

프레드 로저스는 처음부터 방송인이거나 목사는 아니었다. 롤린스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던 학생이었다. 대학 4학년 때, 이제 막 세상을 변화시킬 듯이 신기한 매체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TV라는 매체 속 한 장면에서 충격을 받았다. 한 프로그램에서 상대방의 얼굴에 파이를 집어 던지는 광경을 목격했던 것이다. 그는 그때의 경험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며 동시에 그런 행동이 사람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그런 매체의 선한 영향력의 필요성을 느껴 방송국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이후 신학과 상담, 아동발달에 관한 공부를 공부했다. 1968년부터 2001년까지 공영방송에서 그만의 독특한 신념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했다. 아이는 아이의 삶이 있고, 어른은 어른의 삶이 있다고 그는 믿었다. 그래서 다른 어린이 프로그램처럼 세상의 밝은 면만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4개월 뒤에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인형 캐릭터 대니얼의 대사를 통해 “암살이 뭐니?”라는 질문을 하게 했다. 이혼, 전쟁, 인종차별, 죽음, 9.11 테러 등 다른 어린이 프로그램이 다루지 않는 주제도 다루며 어린이

에게도 세상의 일원으로서 그들 눈높이에 맞는 진실을 알려주려 애썼다.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에서도 프레드는 텐트 치기에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스태프들이 미리 텐트를 세워놓을지를 묻자, 그는 실패한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자고 하며 ‘어른들도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았으면 해서요.’라고 답한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 주려던 것이 판타지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또한 닉슨 대통령 재임 기간에 베트남 전쟁에 드는 자금 확보를 위해 공영방송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라는 안이 확정적으로 진행되자, 워싱턴 D.C의 미 상원 통신소위원회에 출석해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두 사람의 총격 장면보다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공영방송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그의 연설을 통해 2천만 달러의 예산이 확보되며 정부의 계획은 변경됐다. 그에게 있어 방송은 단순히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유희적 차원이 아닌, 혼탁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수권지였다.

그의 이러한 일관된 삶과 방송에 대한 태도는 2003년 5월 5일, 미국 상원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기념한 추모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다.

‘프레드 로저스는 깊은 영성과 온유한 성품으로 온 나라의 아이들에게 다가갔으며, 모든 아이가 자신이 속한 사회와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뿐 아니라 죽음이나 부모의 이혼 같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다루려 했다. 살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대답을 제시했고,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그런 일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를 통해 우리는 믿기 어려울 만큼 긴 세월 동안 자신이 가진 영향력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며 모든 논의를 수평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시대에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삶으로 증명해 낸 신실한 증인 한 사람을 만나는 일은 기쁨을 넘어 경외감을 느끼게 한다. 복음이 삶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면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를 보기를 권한다.

글쓴이 : 성현(필름포럼 대표, 서울국제사랑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시네리뷰

<기도하는 남자>를 보는 한 가지 시선

“이 영화는 기독교를 비판하고자 만든 영화가 아닙니다.” 강동헌 감독은 오히려 영화 <기도하는 남자>가 “모든 이들이 가진 고민을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영화에서 개척교회 사모 정인으로 등장하는 류현경 배우는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인생의 소용돌이를 표현한 영화”라고 밝힌다.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어떠한 위기로 인해 찾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누구나 겪는 갈등과 고민을 담고자 했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지하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대리운전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목사 태욱(박혁권)과 아내 정인(류현경). 당장 재개발 때문에 교회 공간을 비워줘야 하고, 얼마 되지 않는 성도 중 일부는 대형교회로 이동하기도 한다. 지독한 경제난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 정인 어머니의 치료비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않는 두 사람에게 유혹의 손길이 찾아온다.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신실하게 살았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돌아오는 것은 모멸과 수치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상황은 점점 악화될 뿐이다. 방황과 불안으로 유혹받는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을 풀어주시고 참된 평안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유혹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태욱의 설교는 다름 아닌 자신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었다. 비단 열악한 목회 현실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너무도 무력하여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에 놓인 모든 이들에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렘 29:12)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이 영화의 제목은 <기도하는 남자>이고, 영어 제목은 Pray, 곧 기도다. 마치 해피 엔딩처럼 보이는 영화의 결말만 놓고 본다면, 교회 안에서 흔히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간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영화를 줄곧 진지하게 따라간 이들이라면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른 지점에 있다는 것

을 알 것이다. 신앙과 신념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려 하는 신자,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가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갈등하고 고뇌하며 욕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자본이 신이 되는 ‘바벨탑’ 세상에 피투(被投)되어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simul justus et peccator)으로서 살아가는 모순적 존재라는 것을 말이다. 오히려 두 사람이 헛된 것을 마음에 품었으나 유혹의 손을 끝내 잡지 못한 것이나 적어도 태욱이 부끄러움을 느꼈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 영화는 기독교영화가 아닙니다.” 영화를 설명하는 또 다른 자리에서 강동현 감독이 했던 말이다. 적어도 이 영화는 통상적으로 ‘기독교영화’로 분류되어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종류의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몇몇 장면이나 인물의 설정을 두고 신성모독 혹은 교회 비판 영화로 읽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7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이 영화를 상영작으로 선정했다. 기독교 가치를 담은 영화를 상영하는 이른바 ‘기독교영화제’로서 이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회 내부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교회 바깥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보편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소통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더욱이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들이나 목회자 가정의 가족들, 나아가 삶 가운데 크나큰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힌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부분들이 있다. 문화선교연구원은 이미 영화 <밀양>을 ‘기독교에 말을 건네는 영화’라고 평가하거나, 물량주의와 성공지향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를 비판한 <퀴비디스>, 목회자 성폭력을 소재로 인간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룬 <로마서 8:37> 등의 영화를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상영하고 감독들을 기독교영화인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기독교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이해를 엿볼 수 있다. 바로 기독교영화란 비/기독교라는 선명한 경계선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경계가 모호한 지점이 있더라도 그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성찰과 실천으로 이어지느냐일 것이다.

이 영화는 현실을 기반으로 영화적인 연출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직면하게 한다. 영화를 따라가면서, 인간으로서 실존적 고뇌에 참여하고, 신앙인으로서 주변의 작은 교회와 이웃의 어려움을 내 몸의 그것처럼 관심하지 않은 것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영화 <기도하는 남자>를 계기로 이제 막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감독이 영화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글쓴이 : 김지혜 목사(문화선교연구원 책임연구원)

시네토크
with
전도사닷컴

참석자: 강동헌 감독, 김지혜 목사(문화선교연구원 책임연구원)
모데레이터: 박종현 목사(전도사닷컴 편집장)

박종현 편집장: 일단 저는 김목사님께 여쭙보고 싶어요.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영화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지혜 목사: 어떤 분들은 몇몇 장면이나 설정을 보고 ‘불경한 거 아니냐, 신성모독 혹은 교회를 비판하는 거 아니냐’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영화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면서 당면하는 딜레마적인 현실 앞에서 고뇌하고 갈등하며 욕망하기도 하고 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연약한 한 인간에 대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종현 편집장: 어느새 기독교 영화제까지 오셨어요. 감독님의 의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영화의 한 부분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님?

강동헌 감독: 표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건 다 다르니까요. 목사님들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영화를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기독교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안 봤는데 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한국 네티즌들의 문화인 것 같으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초대하는 연락을 받고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이 영화를 만든 건 아니고요. 비판할 만큼 알지도 못해요. 저는 평범한 얘기를 다루고 싶었어요. 이 영화는 돈에 관한 이야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돈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기존 영화나 드라마에서 과장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 비추어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김지혜 목사: 감독님께서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 초대받아서 놀랐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비슷한 표현을 익히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어요. 2015년에 영화 <퀴비디스>를 제작한 김재환 감독님이나 2018년 <로마서 8:37>의 신연식 감독님 모두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 초청받아서 영화가 상영

되고, 기독교영화인상을 수상하면서 비슷한 반응들을 보이셨거든요. 일각에서 교회 비판 영화라고 평가되는 영화들을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상영할 때, 외부적 시선으로 교회가 어떻게 비치는지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교회의 방향성과 그것을 극복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초청을 했던 거고요. <기도하는 남자>도 교회를 소재로 삼으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적으로 함께 성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제에서는 <기도하는 남자>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기독교영화를 다루는 ‘미션 섹션’이 아니라 정의, 평화, 생명 등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아가페 섹션’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기독교영화제인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영화 <기도하는 남자>를 다루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같이 공감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관객과의
대화

1. 영화의 제목을 <기도하는 남자>로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 전개에서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강동헌 감독: ‘기도하는 남자’가 원래 가제였는데요. 목회자를 종교인보다 평범한 사람으로 봤어요. 목사를 직업이라고 생각했죠. 직업을 ‘기도하는 남자’라고 표현을 하면 의미 면에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라는 태욱의 대사도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기도의 의미를 물으셨는데요. 누구나 기도는 하잖아요. 원하는 것이 있지만 늘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싶었어요.



박종현 편집장: 목사님은 여기서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셨어요.

김지혜 목사: 몇 가지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인의 동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와 내가 만난 건 기적이야.’라고. 이처럼 기적 같은 단어를 왕왕 우리의 뜻이나 욕망을 따라 사용하곤 하는 것 같아요. 사라 코클리라는 학자에 의하면, 기도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에 우리의 욕망이 일치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우리의 욕망만을 추구할 때가 많잖아요. 영화의 결말에서 태욱이 번듯하게 목회를 하는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 교회 내부적으로 흔히 이야기 하는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셨어요.’라는 간증하고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기적 같은 기도의 결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 과정에서 나의 욕망이 개입된 것은 아닌가 고민해볼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너무도 간절하게 구했는데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밑바닥을 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누군가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라는 장치를 통해 인간의 실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2. 특별히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나요?

강동현 감독: 영화의 출발점이 돈에 관한 것이고,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는 않지만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신은 감내할 수 있는 고통만을 준다.’라는 메시지를 알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언제 응답을 주실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끝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영화의 엔딩도 마찬가지지만 신이 열심히 살라고 해도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태욱과 마찬가지로 2020년을 살고 있는 저도 계속 열심히 살라는 신호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이 주는 고통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동기도 되기도 하고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지점들을 다루고 싶었고요. 영화니까 극적인 장치를 조금 하게 되는 거죠.

김지혜 목사: 영화에서 하박국 말씀이 설교나 기도 가운데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을 하박국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며, 의인이 악인으로 인하여 고통받느냐는 질문을 하잖아요.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결국

악이 계속되는 삶 가운데에서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는 깨달음을 얻지요.

3. 새벽기도를 가는 장모를 쫓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를 태육이 사주한 건가요?

강동현 감독: 사주한 것 맞고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바뀐 것도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한 이유는 장모님에 관한 부분이 큰 반전이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장모님이 그런 선택을 하기 전까지도 관객들이 몰랐으면 해서요. 단점이 되더라도 생각을 하자고 영화적 선택을 했어요. 만약에 친절하게 조금의 뉘앙스를 줬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장모님의 선택이 엄마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모님이 제일 신심이 크거든요. 그리고 태육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다큐멘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숨기고 싶었어요.

4. 새벽기도 장면 전 태육 목사는 누워서 뒤척일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사주에 대한 후회일까요, 두려움일까요?

강동현 감독: 두려움이 클 것 같고요. 그런 일을 사주했지만 감당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나가는 걸 확인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눈을 뜨면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라고 하잖아요.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죠. 결국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뛰쳐나가버리고 만 거죠. 아까 제목과 관련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린 것과 연관되는데요. 영화니까 그런 거고, 제가 실제로 선택했던 것은 여전히 인간 본연성은 지켜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박종현 편집장: 영화 마지막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 태육이 변화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외국인 노동자를 막은 거고요.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영화 <교회 오빠>에서 다루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5. 마지막에 구토를 하는 장면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나요?

강동현 감독: 보시는 분들이 각자 보시는 대로 해석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생각했던 게 첫 번째로 의미적인 것보다는 몸의 반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된 장면인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주일 간격으로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식사를 못 하셨는데도 마지막 과정을 끝내고 갑자기 구토하시더라고요. 큰머느리 입장에서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몸의 반응이 저렇게 나왔구나, 그때 많이 인상 깊었어요. 김태욱 같은 경우도 마음속에 엄청난 죄의식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구토라는 몸의 반응으로 신의 고통이 계속된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멸정하지만 이 사람의 삶이 힘들지 않을까, 그 일 때문에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장면 자체는 그냥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 신이 내리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박종현 편집장: 목사님 그 결론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지혜 목사: 사실 이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요. 시네토크 전에 다시 한번 보는데 태욱이 구토 직전에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붙잡으며 살아야 한다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은데, 목회자로서 삶과 메시지가 일치해야 하잖아요. 태욱 본인이 현실의 막다른 길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으나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자신에 대한 구약감이 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종현 편집장: 여러분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욱 목사가 사람들에게 핀잔들을 때 장면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짧은 옥과 함께 “왜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태욱 목사가 무척 성실한 목사인데 이런 사람도 누군가에게 돈 때문에 불편하게 사는구나. 본인의 인품과는 상관없이 돈 때문에 불편한 존재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어떤 장면들이 인상적이셨나요?



김지혜 목사: 지금까지 메시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감독님의 연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디테일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앵글까지 눈에 들어온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정인이 호텔에 갔는데 순결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은 것이라든지, 영화 뒷부분에서 태욱과 아이들이 직스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그 퍼즐 이미지가 피터 브뤼겔의 <바벨탑>이라든지 하는 것들이요. 그 장면을 위에서 버즈 아이 뷰 앵글로 잡아서 마치 하나님이 바벨탑을 내려다보시는 것처럼 연출하셨는데, 이 영화 한 편을 압축해서 단 한 컷으로 줄인다면, 바로 그 장면일 것 같아요. 16세기 사회경제적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플랑드르의 상황을 브뤼겔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린 것인데, 그 신(scene) 직후부터 태욱이 급격히 다른 상황으로 치닫게 되잖아요. 반면에 장모님 집에 걸려있었던 밀레의 ‘만종’ 그림은 작은 것도 감사하게 여기며 신실하게 살아온 장모님 인생의 기초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그리스도의 수난을 연상케 하는 태욱이나 장모님이 길 한가운데 누워있는 장면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연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종현 편집장: 관객 중에 한 분이 이런 평을 해주셨어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겪는 갈등을 정말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네요. 목회자가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가장으로, 한 생활인으로서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학교와 한국교회가 함께 풀어갈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을까요?

강동현 감독: 제가 개인적으로 위로를 되는 영화를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를 떠나서 신이라는 존재는 있다고 생각하는 유신론자예요. 코로나19 19라는 시국이 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한 시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김지혜 목사: 영화에서 태욱이 꿈을 꾸잖아요. 그 부분이 마틴 스킨세지의 영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과 오버랩 되어서 비교도 하고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워낙 논쟁작이다보니 마틴 스킨세지가 영화의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영화는 복음서를 원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영적 갈등에 대한 상상의 탐구이다.” 폴 킬리히의 유명한 명제 “종교는 문화의 심층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는 말처럼 감독님께서 어떤 영화를 만드시든지 우리에게 신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 상상력을 펼쳐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한국교회와 비신앙인들이 문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너비와 깊이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울국제사랑영화제도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네리뷰

페페의 운명이 보여주는 현대사회의 민낯, <필즈 굿 맨>(Feels Good Man)

<필즈 굿 맨>(아서 존스)은 2005년부터 시작된 만화 ‘보이즈 클럽’의 캐릭터, ‘페페’가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혐오의 상징으로 변질되어간 과정을 추적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다큐멘터리다. 영화에 수없이 등장하는 개구리 그림에는 현대사회와 현대인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역사가 깃들여 있다.

영화는 원작자인 맷 퓨리가 페페를 그리는 영상으로부터 시작한다. 백지 위에 펜으로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페페의 눈동자에는 어떤 가치관도 담겨 있지 않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주름 많은 개구리 캐릭터는 포챌(www.4chan.org) 사용자들의 눈에 띄게 되고, 이들은 페페를 이용해 ‘밈’을 시작한다. 스스로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족이라 칭하는 이들은 페페를 자신들의 마스코트로 만들어간다. 처음에는 루저들의 슬픔을 정확히 표현한 이미지로 주목 받았지만 익명성 뒤에 숨은 포챌 유저들의 상상력은 갈수록 과격해지고, 페페는 정치적으로까지 이용되는 수난을 겪는다. 그렇게 슬픈 눈의 개구리는 디지털 시대가 만들어낸 손쉬운 ‘인터넷 밈’의 세계 속에서 가장 유명한 피해자가 되고 만다. 페페의 왜곡된 이미지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캐릭터의 죽음밖에 없었다.

견잡을 수 없이 오용되고 변질되어 가는 페페의 운명을 보면서 가장 궁금해지는 것은 페페를 이렇게 만든 주체일 것이다. 2015년 업프콰 커뮤니티 칼리지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나 가슴에 개구리 배지를 단 정치인은 포챌을 이루는 작은 점들에 불과하다. 페페 이전부터 있었던 ‘필즈 가이’(‘보약’) 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일종의 분노 연대라는 것이다. 분노에서 비롯된 극도의 좌절감, 허무주의를 표출하기 위해 이들은 스스로를 희화화하며, 아이러니를 담은 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포챌에 올라오는 극단적인 이미지를 보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다른 이들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아이러니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과 함께 이들의 분노는 자연히 외부로 뻗어나갔고, 그 과정에서 인종, 성별, 지역, 사상, 종교에 대한 혐오가 더해지게 되었다. 페페는 웹 사이트 밖에서도 익명성을 표방하는 포챌 유저들의 가면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페페가 2016년 대선 당시 뉴스와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것은 외부에 자신들의 존재감과 저력을 맛보게 해준 짜릿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과연 포챌 유저들이 트럼프를 당선시킨 것일까? 트럼프 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 포챌 밖에 있는, 그들보다 더 분노한 자들의 결단 때문 이 아니었을까?

<필즈 굿 맨>은 한 만화 캐릭터의 흥망 및 그 배후를 보여줌과 동시에 현대사회의 그림자와 현대인들의 병든 마음을 돌아보게 한다. 포챌에 게시물을 올리며 희열을 느끼는 이들을 뼈뚫하게 바라보고 정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들은 대유적인 존재일 뿐이다. 이 시대에 인간의 정신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방치하는 사회의 구멍은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만화 캐릭터나 아티스트 뿐 아니라 네티즌과 미디어가 멋대로 매도하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글쓴이 : 윤성은 영화평론가

—

시네토크
ميم(Meme)으로
소통하기

참석자 : 윤성은 영화평론가
모데레이터 : 김보희 프로그램팀장(서울국제사랑영화제)

김보희 프로그램팀장 : 평론가님은 <필즈 굿 맨>을 어떻게 보셨나요?

윤성은 평론가 : 혐오 표현에 관한 영화라서 시의성도 있고,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슈라 생각해서 즐겁게 감상하였습니다.

김보희 프로그램팀장 : 다큐멘터리 영화도 많은 스타일로 구분이 되겠지만 <필즈 굿 맨>은 특정한 관점에서 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보전달에 집중한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는데 <필즈 굿 맨>은 미학적 관점 혹은 영화 스타일에 관하여 감상할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윤성은 평론가 : 다큐멘터리로서 그렇게 특별한 형식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오래 찍었고, 자료 수집이 잘 되어 있어서 공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앞 장면에 멧 퓨리가 페페를 그리기 시작하는 모습부터 나오는데 아무런 가치관이 담기지 않은 그 개구리에 다양한 의미와 가치가 담기기 시작하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변질되어 가는 페페의 이야

가, 그와 더불어 작가가 자신의 캐릭터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는가 하는 서사를 따라가는 것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페페가 만화 캐릭터이고, 밈이라는 활동이 미디어를 통한 것이다 보니 실사가 아니라 이미지와 동영상의 연속 삽입되기 때문에 영화는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어 보입니다. 영화 자체가 밈 시대, 밈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희 프로그래밍장: 포챗 유저들이 페페를 사용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하는데 변화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특히 연예인이나 여성들이 페페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포챗 유저들은 페페를 빼앗겼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빼앗긴 페페를 되찾아오기 위해 이전과는 달리 더욱 공격적이고 반인륜적인 메시지를 담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포챗 유저들에게 페페라는 캐릭터는 어떤 존재일까요?

윤성은 평론가: 우선 포챗 유저들이 어떤 이들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포챗 유저들은 스스로를 마이너리티로 규정하고 그 안에서 밈 활동을 통해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페페는 그들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마스크트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연예인들이나 셀럽처럼 사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페페를 사용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포챗 유저들에게 그 캐릭터를 빼앗기는 것은 존재감을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김보희 프로그래밍장: 포챗이라는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게 되는데요. 이 익명의 개념과 발언의 자유라는 것이 합쳐져 개인이 휘두르는 무기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발언의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들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윤성은 평론가: 발언의 자유와 혐오 표현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자유’는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것이고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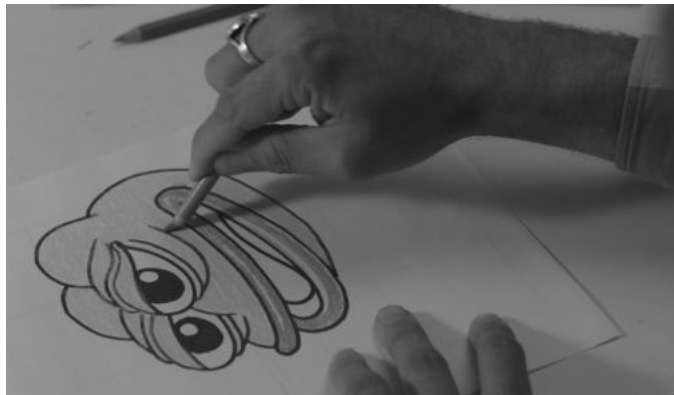
김보희 프로그래밍장: 후반부에 보면 맷 퓨리가 인터넷의 밈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거기에 대해 맷 퓨리는 “조금 더 일찍 대응했어야 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윤성은 평론가: 창작자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저작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 맷 푸리는 처음에 후자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번지는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고 나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밈 데이터 분석자들에게 ‘조금 더 일찍 대응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그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초반에 그는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희 프로그래밍장: 마지막 부분에 감독은 해결책을 한가지 제시합니다. 혐오의 표현에 사용된 페페를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해 혐오의 이미지를 씻어내는 방식으로요. 이런 방법이 정말로 의미와 효과가 있는 방법일까요? 혹시 제안해주실 방법이 있을까요?

윤성은 평론가: 영화에 나오는 페페에게 다른 이미지들을 덧씌우려고 했던 캠페인이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러야 했지만, 이 캐릭터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는 혐오가 아닌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 밖에 없으니까요. 홍콩 시위에서 다시 페페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작가에게나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이들에게나 감동적인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보희 프로그래밍장: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네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네리뷰

구약성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다. 히브리 사람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처절한 가나안 정복 전쟁 끝에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하지만 그들이 차지한 땅 그 어디에도 실제 ‘젓과 꿀이 흐르는’ 곳은 없었다. 땅에 젓과 꿀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그 땅의 비옥함이나 척박함의 문제가 아니다. 땅의 비옥함이야 해마다 강이 범람하여 유기물이 가득한 토양이 썩어 썩이 쌓인 이집트 땅에 건조한 가나안 땅을 갖다 덜 수 있었을까?

때문에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람이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상징이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배와 수탈의 제국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상호존의 생태적인 삶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아가던 땅을 빼앗아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특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히브리 사람들이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지키고 돌보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의 삶을 유지할 때, 가나안 땅은 결국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는 보편적인 약속이었다.

환경문제를 비롯한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약탈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가 지구 생태계에서 지속가능하게 얻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하지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소비와 소유를 추구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히 다른 존재들의 것을 빼앗는 약탈의 삶을 선택한다. 하지만 지구 생태계는 상호존의 법칙으로 창조된 공간이다. 결국, 약탈의 삶의 방식은 지구 생태계의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꿀벌은 지구 생물들 가운데 가장 조직화된 군집생활을 하는 생물집단이다. 각각의 꿀벌 개체들은 작은 곤충일 뿐이지만, 유기적인 관계로 조직된 꿀벌 집단은 곤충의 특성을 넘어서는 놀랍도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생명체이다. 지구 생태계의 80%의 육상식물이 수분 곤충에 의해 번식을 하고, 그 가운데 90% 이상의 식물은 꿀벌에 의해 번식을 한다. 약탈자 인간과는 달리 꿀벌이야말로 지구 생태계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꿀벌은 철저

하게 상호존성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지구 생태계를 돌보고 살핀다.

벌의 삶을 이해하고, 벌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아티제’야말로 진정한 ‘지구인’이다. 아티제는 아픈 꿀벌을 돌보고, 꿀벌의 집을 만들어 번식을 도우며, 필요에 따라 꿀벌들에게 꿀을 얻는다. 꿀은 아티제의 아픈 어머니의 약이 되는 바나나 한 송이, 아티제의 머리를 곱게 염색해주는 염색약이기도 하다. 꿀벌은 로열젤리를 모아 여왕벌을 키우고, 겨우내 꿀을 먹고 꿀벌 군집을 유지하며, 아티제 모녀를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게 돕는다. 아티제가 꿀벌들과 살아가는 작은 집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 Honey land다.

글쓴이 : 이진형 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시네토크
with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참석자: 이진형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모데레이터: 김현주 프로그래머(필름포럼)

김현주 프로그래머: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어떤 단체인가요?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진형 사무총장: 저희는 한국교회 안에서 생태 신학을 연구하고, 교회들이 어떻게 환경 운동을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하는 단체입니다.

김현주 프로그래머: 오늘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영화의 배경은 지역적으로 북유럽의 외딴 산 마을인데요, 발칸 반도의 마케도니아에 속한 곳입니다. 어느 정도로 외딴곳인가 하면, 영화 중간에 보면 꿀 팔러 시내로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스코페라고 이 나라의 수도예요. 영화가 촬영된 곳은 스코페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인데 네 시간 정도 걷고 기차를 타야 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아티제가 사는 곳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이에요. 영화에 보면 얼음을 녹여서 물로 사용하는 장면도 나왔었고, 밤에는 촛불만 켜진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조명을 쓸 수 없기에 촬영도 촛불에만 의지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 만들기 위해서 제작진들이 3년 동안 아티제 집 앞에 텐트를 치고 생활했다고 하는데, 촬영 분량이 400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이 정보를 알기 전에는 이 영화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찍은 다큐인지

느끼지 못했어요. 주인공의 산골 생활이 단조로워서 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주인공의 옷이 바뀌지 않아서 더욱 시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아티제가 계절에 따라 외투를 입기도 하고 스카프를 걸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은 노란색 블라우스하고 치마를 영화 내내 입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분이 얼마나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소박한 삶을 살아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여행 갔을 때 한두 번이었거든요. 일상에서는 별로 그런 삶을 실천하지는 않고 사는데,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런 소박한 삶들에 대해 평소에 생각하고 실천하고 계시지 않을까 궁금했는데, 어떠신지요?

이진형 사무총장: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아티제의 패션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영화를 봤어요. 사실 오늘 시네토크 한다고 해서 자켓도 새로 사 입고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민망하고 부끄럽네요 (웃음). 사실 ‘소박하다.’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박한 삶이 저개발국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소박하지 않은 삶이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의 소박한 삶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소박하다는 것의 기준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연이 우리에게 지속가능하게 줄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삶이 소박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티제의 이웃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자연에 있는 것들을 착취하고 아티제의 벌들까지 빼앗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소박하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삶이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소박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이 주는 한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사는 것이 소박한 삶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현주 프로그래머: 개인적으로 단벌로 지내셔야 했던 경험 있으셨나요?

이진형 사무총장: 그러려고 억지로 노력을 한 적은 있었어요. ‘소유를 최소화 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전에 계셨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님이 거의 수도사처럼 살고 그러셔서 조금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생각하고 지금은 여러가지로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현주 프로그래머: 짧지만 소중한 경험으로 남으실 것 같네요. 처음에 소박한 삶에 대해 말씀해주실 때 아티제의 착취하는 이웃들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아티제의 삶의 공간에 들어온 유목민들 가족들이요. 이들의 삶의 방식과 아티제의 삶의 방식이 대조적이어서 그들의 착취가 정말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아티제가 나눠주는 소중한 것들은 받으면서 그녀의 충고는 무시하잖아요. 꿀은 절반만 가져가고 절반만 남겨두라고 충고를 했는데 그 충고는 무시하고 그들이 가져갈 분량만 극대화시키기에 여념이 없죠. 그 결과 선의를 베푼 아티제와 그녀의 별들이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인의 피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들의 행동을 보고 관객들께서도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지만, 손익의 구조를 따지자면 손해는 보는 것은 도덕적이고 타인을 배려한 아티제이고, 폭력적이고 배려가 없었던 유목민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면서 우리의 이익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사회적 메시지에 따라 타인을 경쟁 상대로 보고 우리의 안녕이나 우리의 이익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결국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타인을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공존의 관계로 바라보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이진형 사무총장: 개인적인 도덕의 문제나 성향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웃의 재산을 착취하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의 삶도 유목민 가족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각각 그렇게 의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의 시스템, 경제 체제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때문에 그런 시스템 안에서 개인의 도덕적인 선택이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지구라는 큰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계의 양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 사회의 시스템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비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그것을 같이 나누고 사용해야 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영화와 책을 통해 양봉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살펴보았는데, 사실 꿀벌이라는 존재가 생태계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물이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식물의 80% 정도가 수분 곤충에 의해서 번식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그 80%의 식물 중에서 90%의 식물들 정도가 꿀벌에 의해서 수분을 한다고 그래요. 꿀벌이 자신의 삶을 지켜가면서 생태계 안에서는 적절한 역할을 할 때 생태계가 더 풍부해지는데 인간들은 꿀벌들을 자꾸 이용가치로만 바라보고 꿀벌을 나한테 소득을 주는 가치로 바라보기 때문에 경쟁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보면 아티제가 주변에 있는 것들과 정말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또 연약한 어머니를 돌보며 공생의 삶 공생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삶의 자세가 이런 것이 아니지 않겠냐는 메시지를 영화가 던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현주 프로그래머: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공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공생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자연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티제는 사람과 자연, 둘 다 모두 잘 배려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저는 사실 도시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자연을 저런 자세로 대하는 삶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아티제가 꿀을 가져가면서 ‘너희들이 선물해 준 것이니 반은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꿀벌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신신당부를 해요. 처음엔 이게 꿀벌들을 향한 배려로만 느껴졌었는데, 계속 이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배려를 넘어서 그녀가 살아가면서 터득한 삶의 지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하는 존재다, 라는 공생의 메시지처럼요.

영화에서 아티제가 보여주는 행동들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이 드러나는데요. 혹시 기독교인들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보는 면모들이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이진형 사무총장: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창조세계 자연 혹은 생태계를 꾸준히 돌보고 가꾸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가장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서 다스려라.’ 하며 명령하시는데 그 다스리라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살피고 돌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88년 즈음에, ‘JPIC세계대회’라고 서울에 아주 중요한 기독교 단체의 행사가 있었어요. ‘J는 justice, P는 peace, IC가 integrity of creation’이라고 해서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는 의미를 지닌 행사였는데, ‘교회가 선교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교회를 더 많이 세우고 신앙인들에게 더 많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와 창조의 질서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신학적인 대회였어요.

이 ‘창조적인 질서의 보존’이라고 할 때 핵심이 뭐냐 하면 ‘상호의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이 서로서로 공존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으니 ‘그 상호의존의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그 상호의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익히고 깨닫는 것이 이 교회 선교의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교회의 모습이 정의와 평화, 상호의존성의 모습을 확대해가는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뜻, 평화를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 그리고 상호의존성을 확대해가는 성령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읽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김현주 프로그래머: 저는 사실 오래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인간은 자연을 정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복이 아니라 돌봄과 공생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대화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이진형 사무총장: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까 영화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꿀’에 관해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젓과 꿀이 나오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을 때 그 땅에서 젓과 꿀이 흘렀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한테서 히브리 사람들을 거짓말로 선동을 한 걸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젓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호의존의 삶의 방식으로 공존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젓과 꿀이 흐르는 삶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비춰 보이면서 ‘우리는 지금 꿀이 흐르는 공존의 허니랜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약탈의 삶을 살아가는가’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김현주 프로그래머: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비유를 통해서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이건 또한 성공이라는 단어가 연상 되거든요. 우리는 모두 성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서 성공이라는 것을 보통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경쟁에서 이기는 성취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영화를 보고 목사님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서는, 성공이라는 것이 어쩌면 성취가 아니라 같이 공생하는 삶,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존의 삶을 살아가갈 때 가나안 땅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토크를 마무리하면서, 독일의 작가인 저널리스트인 악셀 라이트의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이라는 책의 인용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쉽고 당연한 선택
일지 모른다. 하지만 오직 자신만을 위한 판단을 내리는 자유 대신에 타인을
중심을 놓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삶의 일부분을 내어줄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공존과 공생을 위한 진정한 품위인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극장까지 오시기까지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참석해주
시고 씨네토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네리뷰

지난 1939년, 오스트리아 시골마을 라데군트의 프란츠 예거슈테터는 아내, 그리고 세 딸과 함께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평범한 농부다.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그의 삶은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나치독일의 징집명령으로 위기에 놓인다. 신 앞에서 양심을 따를 수밖에 없는 프란츠는 아돌프 히틀러 총통에 대한 충성맹세를 거부한다. 이런 그를 마을 대표와 주민들은 이기적이라며 비난한다. 올바른 신앙적 선택을 위해 찾았던 주교마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바울 사도의 말을 내세우며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프란츠는 끝내 불의의 손을 잡지 않고 자발적으로 교도소행을 택한다. 프란츠는 영어의 몸으로 아내 패니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신념을 지켜내려 한다. 패니는 마을 사람들의 온갖 멸시를 견뎌내며 남편에게 힘이 되려 한다. 오랜 교도소 생활 끝에 재판에 회부된 프란츠는 결국 사형언도를 받는다. 그는 겹세마네 동산의 예수처럼 신이 자신이 마셔야 할 쓴 잔을 치워주길 소망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세 딸과 헌신적인 아내에게 돌아가는 삶을 꿈꾼다. 재판관 연자와 변호사 등은 마지막까지 유일한 살길은 히틀러를 향한 충성맹세뿐이라며 프란츠를 몰아붙인다. 하지만 그는 끝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명예롭게 사형대로 걸어 나간다.

영화 <Hidden Life>는 말 그대로 ‘무명의 삶’을 말한다. 위대한 투사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옳은 신념을 따라 자신의 삶을 내동댕이친 수많은 무명위인에 대한 기록이요, 찬사다. 영화 제목처럼 프란츠는 이름 없는 농부였다. 하지만 진실한 그는 누구보다 위대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일제강점기가 길어지며 수많은 저명인사들이 친일로 전향할 때 다수 무명의 독립투사들이 초개처럼 목숨을 내던지며 조국을 위해 싸웠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면 회유할 때 주기철, 손양원 목사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여러 신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영화 말미에 영국 작가 조지 엘리엇은 말한다. 세상은 역사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무명씨들의 위대한 행동으로 아름다워진다고. 그렇게 옳은 삶을 살았던 자들이 무덤 속에 누워 쉬고 있다고.

<트리 오브 라이프>로 2011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테렌스 맬릭 감독

독 작품으로 지난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경쟁후보작. 맬릭의 다른 주요작품으로는 <황무지>(1973년)와 <씬 레드 라인>(1998년) 등이 있다.

글쓴이 : 이무영 감독(영화평론가, 서울국제사랑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시네토크:
테런스 맬릭
감독의
영화세계

참석자: 이무영 감독(서울국제사랑영화제 부집행위원장, 동서대 교수)
모데레이터: 조현기 프로그래머(서울국제사랑영화제)

이무영 감독: 보통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하기가 참 민망한 영화죠. 그래서 ‘영화를 무겁게 잘 보셨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화를 보신 느낌들을 관객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가 굉장히 느린 호흡으로 진행되고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짐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어 여러분들도 더 보신 내용들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들이 있으실 거고요. 또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프란츠라는 인물은 어렸을 적에 와일드한 인생을 살았는데 실제로는 그에게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 부인이더라고요. 이 영화에도 간단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토바이가 나오잖아요. 젊은 시절의 와일드했던 면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내를 만나서 삶의 태도가 바뀌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조금 성숙해지는 계기를 아내와의 만남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프란츠가 신념 때문에 히틀러에게 충성 맹세를 할 수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신념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신념의 근원은 아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굳건해진 신앙심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거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봤을 적에 프란츠의 눈에는 그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악마로 보였던 거죠. 악마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올바를 수가 없잖아요. 놀라운 것은 비슷한 시기에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이 자기 신앙,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는데, 주인공 프란츠도 그 신앙을 지

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보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 느낌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신께서 약간의 계시라도 주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견뎌내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계시가 없더라도 신념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게 진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히틀러가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이 세상에 정의가 설 것이고 그 신이 악을 응징할 것이라고 지식으로만 안다면 변화가 불가능했겠지요. 이 세상이 바뀌는 이유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 신념을 가지고 싸워왔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많은 통찰력을 던지게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현기 프로그래머: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제목을 약간 거창하게 테렌스 감독의 영화 세계로 제목을 지었지만 그 분의 작품 세계를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분의 작품 세계를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작품이었던 <천국의 나날들>을 시작으로 테렌스 맬릭의 작품 세계에 일관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죠.

이무영 감독: 테렌스 맬릭 감독은 원래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MIT에서도 철학을 가르쳤던 교수였으니까요. 영화를 아주 어릴 때부터 수학을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마 천주교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신실한 삶을 영위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렌스 맬릭 감독의 영화를 보면 영화의 많은 부분이 신앙의 문제들, 존재의 문제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렌스 맬릭 감독을 처음 알았던 것은 <황무지>라는 영화였습니다. 미국의 실제 있었던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인물과 그 인물의 살인 행각을 따라가는 여자친구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저예산으로 만들었는데 지금도 미국의 독립영화, 컬트영화의 계보에서 거론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천국의 나날들> 만들고나서 20년 넘게 영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 를 살펴봤더니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미국을 떠나서 프랑스에 머물면서 각본을 여러 개를 썼더라고요. 아마 창작의 삶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썬 레드라인>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월남전 영화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대부분의 전쟁 영화가 전쟁의 참혹함, 인간성의 말살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썬 레드라인>은 카메라가 전쟁의 참혹함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연으로 가요. 하늘과 정글 속에 있는 나뭇잎들과 벌레들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인간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의 현장에서도 자연이 있고 그 자연을 움직이는 또 다른 섭리의 주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화가 보여줍니다. 지금 다

시 보셔도 ‘어떻게 전쟁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작품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영화는 <트리 오브 라이프>죠. 그런데 그 영화도 비슷하게 테렌스 맬릭 감독 특유의 형식이 보입니다. 그 영화의 내러티브, 드라마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인간 세상 그 너머의 자연, 그 너머를 넘어서는 세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듭니다. 관객의 입장에서 답답할 수도 있는, 그러나 계속해서 ‘생각할 여유를 던지고 자연과 그것을 넘어서는 섭리에 대해서 그런 방식의 필름 메이킹이 테렌스 맬릭 감독의 스타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연은 인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조금 하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 이 영화에서도 인물을 배경으로 자연을 찍을 때 얼굴을 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를 배우거나 학교에서 영화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찍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내 앞에 놓인 일만 관심 사고 그것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일은 우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연의 세계는 정말 광활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인물을 의도적으로 얼굴의 절반, 하단만 보여주는 것과 같은 카메라 워킹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무영 감독: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장호 감독님 오셨어요. 감독님께서는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이장호 감독: 저는 영화를 보면서 순진한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상업영화 문법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테렌스 맬릭 감독 영화는 굉장히 낯설어요. 낯설지만 그 안의 내용들이 굉장히 진지해요. 영화 시간이 길다는 생각은 전혀 안났어요. 영화에서 행정 관료가 프란츠에게 히틀러에게 반대하지 않는다, 라는 서류에 사인하도록 종용하는 장면에서 저는 속으로 ‘그냥 사인하지’ 그랬어요. (편집자 주: 이장호 감독 본인의 작품 <침묵>과 마틴 스콜세즈 감독의 <사일런스>를 연상 시킨다.) 내가 저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가 끝날 쯤에 내가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좋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집자 주: 영화 거장이 다른 거장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이다.) 상업영화에 익숙한 연출방식이나 카메라 워킹, 편집, 연기까지 모든게 다른, 맬릭 감독 특유의 독특한 방식이지 않나 생각해요. 테렌스 맬릭과 테렌스 영 두 감독이 이름은 같아도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구나 생각했어요. (편집자 주: 테렌스 영 감독은 70년대 활약했던 코믹 서부극 <내 이름은 튜니티>시리즈의 감독이다.) 세상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과 영혼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방식이었다면 맬릭은 후자이고 영은 전자인 것 같아요.

1. 1970년대 테렌스 맬릭 감독의 세계관과 지금의 세계관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무영 감독: <황무지>는 70년대 영화니까 개봉을 30살 정도에 했을 테니까 세월이 48년 정도 있고 <황무지>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 하면은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킵’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한국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로 살인적 본능을 갖고 있는 건데, 여자친구를 꼬드겨서 여자친구의 아버지도 살인하는 그런 살인행각을 벌이고 결국은 나중에는 잡혀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애인데 영화를 보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가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셨다시피 시간이 지나 농익은 테렌스 맬릭은 조금 더 관찰하는 태도에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리고 무언가 구원을 조금 희미하게라도 보여주는 시선이 있잖아요. <씬 레드라인> 이후에 보여지는 것은 세상을 많이 조금 더 살았던 사람으로서 훨씬 더 마음에 여유가 있고 이 존재에 관한 문제, 삶과 죽음에 관해서 해답을 조금 더 찾은 듯한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테렌스 맬릭 감독이 중요시했던 기독교적인 정신이 궁금합니다.

3. 카메라 각도가 주인공의 시점에서 보여지듯이 그리고 창조자의 관점에서 보여지듯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이는데 이러한 카메라를 쓴 것이 이유가 있을까요.

4. 관객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밀한 곳에서 독백으로 읊조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에도 굳이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프란츠의 모습처럼요. 그래서인지 굉장히 순수한 감성을 느꼈습니다. 이 말하는 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무영 감독: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프란츠라는 인물 자체가 투철한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가 신을 향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 보더라도 그의 신념은 전혀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양심으로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은 인간의 양심으로서 올바른 것이 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신의 시선 같은 부분과 인간의 시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드는 데 그 두 가지 시선을 병합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들이 겪고 있

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우주의 문제잖아요. 하지만 신의 눈으로 보면 이 광활한 세상에서 정말로 작잖아요. 아마도 그 감독은 이들의 문제, 프란츠가 신념을 지켜 나가야 하는 문제, 가족과 함께 가야하는 문제에 집중하지만 또 동시에 더 넓은 우주, 신의 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객이 관심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태도로 영화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러닝타임은 당연히 길 수밖에 없었겠지요.

5. 영화 잘 봤습니다. 좋은 영화를 상영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 가장 훌륭한 기독교 영화 중의 한 편이네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히든 라이프>의 형식에서 두드러진 것은 일관된 광각 렌즈와 스테디캠을 이용한 롱테이크의 활용인데요. 맬릭의 장편 데뷔작인 <황무지>, <천국의 나날들> 같은 초기작인 쇼트-리버스 쇼트 위주로 된 이야기체 영화로 구성되어 있다면 <트리 오브 라이프>부터 <히든 라이프>까지 컷을 쪼개는 방식으로 내려티브를 진행한단기보다는 대사를 줄이고 이미지 중심으로 된 한 편의 영상시를 만드는 것을 의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맬릭에게 이러한 스타일의 변화가 왜 생겼다고 보시나요?

이무영 감독: 저는 그러니까 <황무지> 때는 필름 메이커로서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상업적으로 연출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따르면서 이야기만 50년대 미국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을 다룬 건데 소재는 충격적인 것이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문법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노말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연출이 바뀌게 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첫째는 더 넓게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일반적인 문법의 인간의 감정, 분노라든지 그런 것에 집중하려면 렌즈를 망원에 가까운



사이즈로 찍어서 포커스를 많이 날리고 심도를 기본적인 인물의 감정에 집중하려고 할텐데 그런 것을 오히려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각렌즈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인물을 보여줄 때도 자연을 보여줄 때는 얼굴이 잘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거의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금기시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들의 얘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것을 원치 않는 그런 감독의 태도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무영 감독: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입증하는 건 아니지만 ‘왜 이런 식으로 연출 방식을 선택했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반응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영화를 보시고 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즐거리를 따라서 두 인물의 슬픈 사정,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막 눈물 흘리고 그래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감독의 연출적 의도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게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요, 뭐 이 영화가 내러티브도 얘기할 수 있고 세계관도 얘기할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연출 스타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뭐 이 영화가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는 영화이긴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든 생각하셔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영화 초반에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 굉장히 믿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념을 내가 지켜내느냐 아니냐 결국은 신이 나에게 지킬 수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를 주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프란츠가 굉장히 위대하다, 끝까지 자기 신념을 지켰으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도 해도 신의 저주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하지만 어쨌든 무언가 인간이 신 앞에서든지 인간 앞에서든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 너무나 고결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이 영화의 제목이 <히든 라이프>고 이름이 없는 농부일지라도 그렇지 위대한 사람인 것이지요.

이장호 감독: 내가 요즘 ‘욥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이 영화에 참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고통만 주신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프란츠가 마지막에 싸인했어도 하나님은 노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무영 감독: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에 프란츠가 잡혀가고 죽음까지 이르는 연출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과 똑같이 보이게 하려고 감독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그 고통은 다 똑같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그리고 그 유혹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겐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고 그 수많은 유혹들이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감독이 이 영화의 뒷부분을 가지고 간 거죠. 거기에는 백 퍼센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과 이것을 연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만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무영 감독: 프란츠가 신념을 내려놓는 그것에 대해서 필름포럼 대표님이신 성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현 대표: 자기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제목이 <히든 라이프>인데 한 편으로는 ‘숨겨졌다.’라는 것은 ‘잊혀졌다.’라는 건데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영화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무명의 농부가 신념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겠다며 프란츠를 회유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그 무명의 삶을 기억하고 기록을 남겨서 테렌스 맬릭이라는 거장이 영화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지요. 30분이면 될 스토리를 이렇게 길게 만들게 된 것도 한편으로는 관객이 영화를 관람하면서 자리를 뜨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까운 3시간을 이름 없는 농부의 신념을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그 삶에 대한 일종의 경외감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현기 프로그래머: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네리뷰

<조선의 별, 박에스더가 남긴 선물>

박에스더는 여성이 조혼을 강요당하던 시대에 김점동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사택에서 잡무를 보던 아버지 김홍택은 당시 막 안공된 이화학당으로 열 살이 된 점동을 보냈다. 시집을 보내기엔 점동이 너무 어려서 식솔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었다. 그렇게 점동은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총명함을 인정받아 몇 년 후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인 보구여관에 통역관으로 보내지게 된다.

점동은 원래 피 보는 것을 무서워하는 보통의 어린 소녀였다. 어찌면 이화학당에 들어갈 때에는 밥을 제때 먹을 수 있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소녀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가 보고 듣는 것들은 그녀를 변화시켰고 그녀는 점점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된다. 결정적으로 언청이 소녀의 수술을 보조하면서 의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느끼게 되었다. 태어날 적부터 언청이로 태어나 사람들을 마주치기 두려워하던 소녀가 성공적인 수술로 웃음을 찾게 된 모습을 본 점동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넘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의사 박 에스더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저 역경을 딛고 의사가 되었다는 성공담이 아니다. 그녀를 움직였던 원동력은 출세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나 욕구보다 타인의 아픔과 기쁨에 반응하며 그녀의 사명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녀는 전쟁을 겪고, 아이를 잃고, 남편을 잃으면서도 끝까지 자신 앞에 놓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자신이 왜 의사가 되었는지를 잊지 않았다. 미국에서 의사가 되고 가난한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서민들의 일상으로 뛰어들어 전심으로 그들을 보살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험하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달려갔다. 그녀의 삶은 가난과 무지의 어둠에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진정 따뜻한 빛이었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었다. 여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던 시대에, 무엇보다, 남자 의사에게 함부로 몸을 보일 수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미신과 잘못된 건강 상식으로 살아가던 당시의 여성들에게 몸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여성 의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 구원과도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나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느라 타인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박 에스더가 보여준 이타 정신은 신선한 충격이다. 그리고, 어떻게 감점동이 박에스더가 되었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보고 듣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된다. “누군가에게 당신도 빛이 되는 삶을 사세요. 우리는 누구나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강인하고 운유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글쓴이 : 김현주 프로그래머 (필름포럼)

시네토크
with
CTS

참석자: 이제선 감독, 최현탁 이사장(CTS), 최혜정 대표(초이스북), 김지영 다큐작가
모데레이터: 배혜화 집행위원장(서울국제사랑영화제, 전주대 명예교수)

배혜화 집행위원장: 영화 잘 보셨지요? 우리나라 최초 여의사의 이야기인 만큼 큰 감동과 울림이 있습니다. 제가 차라리 이화여고 이화여대 출신이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여성 의료계와 여성 교육의 선구자 이야기인데 이화라는 이름에 갇힐까 조심스럽습니다. 정동 이화여고에 ‘한국 여성 신교육의 발상지’ 표지석이 있어요. 그 옆에 유관순 무물도 있어서 이화여고박물관 관람객들은 구경하러 오십니다. 영화에서 보셨던 이화역사관은 이화여고에 공간이 없어서 이화여대에 있습니다. 찾아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합니다. 제가 컴퓨터로 먼저 봤는데 영화관에서 보니 그 느낌과 감동이 너무 다릅니다. 몇 년 전 CGN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작년 CBS <북간도의 십자가>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올해는 작년 12월 24일 저녁 성탄특집으로 방영된 CTS <조선의 별, 박 에스더가 남긴 선물> 다큐멘터리를, 4분가량 추가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추가된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이제선 감독: 추가된 내용은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뮤직비디오가 나오잖아요. 방송 때는 시간 제약이 있어서 뮤직비디오를 편집했는데 이번에는 원곡을 다 살려서 다시 한번 재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에스더 선생님에 대한 미국의 기록이 있었어요. 미국 인구조사서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직업, 그리고 코리아라고 적혀있는 부분과 또 박에스더 선생님 어린시절, 감점동이었죠. 의외로 어린 시절에는 피를 되게 무서워했대요. 그런 요소들을 영화제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해서 제작했습니다.

최현탁 CTS 이사장: 안녕하세요, 먼저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벌써 이게 한 5번째 보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희가 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에 빛진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곱씹게 되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CTS가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135년의 근대 문화와 선교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여성의 역할을 빼놓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CTS는 지난해에 삼일절 특집으로 최근태 목사 편, 성탄특집으로 이렇게 <조선의 별, 박 에스더가 남긴 선물>을 제작했습니다. 앞으로 또 숨겨진 우리 선조들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할 것입니다. 저희 CTS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선교 135년의 역사를 영상으로 남겨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에스더 편도 이제선 피디와 좋은 분들의 협조를 통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런 좋은 작품들, 저희가 잊어버리고 있는 복음에 대한 빛진 부분들, 위인들에 대해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배혜화 집행위원장: 저도 사실 이화여고 교가 “약한 이 힘되고 어둠의 빛되자”를 부를 때마다 ‘빛진 자’로서의 삶의 태도랄까 마음가짐을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기독교 학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조선의 별, 박 에스더가 남긴 선물> 시나리오를 쓰신 김지영 작가 말씀을 들겠습니다.

김지영 다류작가: 저희가 박에스더를 처음 접했을 때 한 여성으로서, 기독교 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근대사에 시금석 같은 사람이 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공유하고 싶어서 자료를 찾았는데 오히려 어린이들 책에 여성 위인, 도전의 상징으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부에 엄마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인트로를 넣었어요. 아이들에게 도전의 상징이고 또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에게는 뭔가 신앙의 상징으로 아이와 엄마가 같이 보는 다큐멘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과거의 조상들에게 우리가 받은 신앙의 대상을 우리 후세대에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박에스더를 접하면서 이 사람이 가진 업적, 했던 일들이 너무 대단하지만 ‘한 사람으로서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그 얼마나 아픔이 많았을까.’라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피디님이랑 상의해서 인생의 드라마가 되는 점점들을 재현을 통해서 ‘아, 박에스더가 느꼈을 생각들을 시청자들과 공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를 뮤직비디오 그 부분은 아까 정경화씨(박에스더 역, 공연일정으로 GV 시작 전 인사)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속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시작에는 로제타 홀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또 신앙이라는 원동력

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길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녀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여기 오신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배혜화 집행위원장: 박에스터, 김점동을 책으로 먼저 소개한 분도 여기 계십니다. 2011년 이화여고총동창회 창립 100주년 기념 전시 '이화, 여성을 바꾸다' 준비를 계기로 시작된 이화인물사 연구, '불꽃처럼 살다간 이화인' 시리즈 첫 작품, 『큰 별되어 조선을 비추다』 최혜정 저자 말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초이스북 대표: 2011년은 이화여고 동창회 창립 100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그 100주년 기념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학교가 보통 건물, 교사, 학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건물이나 교사는 남아있는데 졸업생, 학생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한 번쯤 조명을 해보자 해서 이화인 시리즈라는 계획을 하게 되었고 그 첫 번째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사실은 여의사라는 말보다는 의사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어쨌든 의사인 김점동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전공하고 신문사에서 기사 생활을 한 그 죄인지 벌인지, 제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에스터가 애를 낳는 거는 몰라서.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2014년 출간된 『큰 별되어 조선을 비추다』는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 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 "이화의 여웅", 영웅은 남성 위주의 단어이기 때문에, 전시를 하고 현재 김점동, 김란사, 유관순, 세 권의 책이 나와 있고 김할란 책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배혜화 집행위원장: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질문은 안내받으신 오픈 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 작품 제작 끝내고 아쉬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이제선 감독: 아쉬웠던 점이라기보다는 감사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박에스더 선생님에 대해서 자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을 만나도록 인도해주셔서 미국에서 만난 김현수 박사님이, 전혀 알지 못했던, 박에스더가 둘째를 출산했다는 사진을 보여주셔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또 볼티모어에 계시는 박대성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구조사서에 나와 있는 박에스더 선생님의 대한 기록들, 정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것들, 새로운 사실과 그런 내용을 제가 다큐멘터리에 잘 담을 수 있어서 아쉬웠다가보다는 “야 이거 진짜 만들었던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2. 박에스더 선생님이 조선의 최초 여의사로, 여성 선교사로 큰 공로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인처럼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고, 어떻게 접하시게 되었고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지영 다큐작가: 저희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박에스더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34세에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고요. 박에스더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저희가 찾은 로제타 홀의 일기를 통해서가 전부였어요. 박에스더의 유학생활, 귀국했을 때 신문자료, 그리고 박문희 여사님(박에스더의 언니, 신마리아의 외손녀)이 저희가 접한 유일한 후손이세요, 외손녀이시죠. 그 유일한 후손과 그 가족 분들도 박에스더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또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박에스더를 기억하는 시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감독님, 작가님께서 뽑은 베스트 명장면 한 부분을 고르신다면 어떤 장면이 있으실까요?

이제선 감독: 연출자인 저로서는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라고... (웃음) 저는 굳이 한 장면을 고르라고 한다면, 뮤직비디오에서 박에스더가 이렇게 산 정상에서 올라가 있고 카메라가 뒤에서 쭉욱 나오면서 산을 비추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명장면으로 선택한 이유는, 사실 거기가 그 바위가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마침 자동차를 이용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산을 찾게 되었고, 산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을 찾으려고 했는데 마침 그곳이 딱 보

이더라고요. 쉽지 않은 코스였는데, 카메라를 들고 배우분을 모시고 올라가서 그 좁은 공간에서 아슬아슬하게 찍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라갔을 때 보니 옆에 벌집이 있더라고요.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벌이 계속 돌아다녔어요. 벌이 오면 살짝 숙이고, 벌이 지나가면 촬영하고 힘들게 찍었지만 영상 속에서는 아름답게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저는 그 장면을 명장면으로 뽑고 싶습니다.

4. 제작 당시 가장 공을 들였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점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함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선 감독: 저랑 작가님이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색다르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온 게 뮤직비디오였어요. 노래를 통해서 박에스터 선생님의 삶을 노래와 영상으로 시청자들에게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그 노래를 듣고 그 영상을 봤을 때 “아 저분이 정말 저런 삶을 사시다가 가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뮤직비디오를 준비했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준비 하면서 그 당시의 장소 그 비슷한 느낌을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봇대가 나오고, 전깃줄이 나오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피해서 그 당시의 모습들을 잘 살리고자 여러 장소를 탐색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잘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왔던 강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탄강이에요. 그다음 박에스터가 나왔던 산, 그 산도 포천에 있는 광덕산이고요. 뮤직비디오의 마지막에 보시면 폭포가 짝악 나오거든요. 그 폭포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비둘기 폭포고 맨 마지막에 물 떨어지는 큰 폭포는 제인 폭포입니다.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로제타 홀 선교사님 사역이 조금 더 궁금한데요. 속편으로 제작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최현탁 CTS 이사장: 굉장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담당 피디, 제작 피디는 아쉬운 게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아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콘텐츠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정보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과거의 자료들이 너무 없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공유해서 한 세대를 지나갔을 때 자랑스러운 크리스천이 누구인지 자랑을 해놔야 하거든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잘못된 가르침 속에 너무 겸손하게 있다 보니까 한국 개신교가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너무 절하되어 있습니다. 속편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야 하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분 중에는 이화여고 출신인데 한의대를 나온 현재 생존해계신 최초의 여한의사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고 하

지만 자라나는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속편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있었던 분들 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많은 분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CTS의 사명이라는 생각입니다. 단지 제작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한국교회의 영상제작에 대한 이해 부족과 너무 익숙해져 있는 무료 상영 문화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기독교 영화, 다큐영화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인색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제작자들의 제작에 대한 관심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선교 135년에 숨겨져 있는 많은 분을 발굴해서 계속해서 제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혜화 집행위원장: 정말 너무나 많은 개발할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책을 쓰시면서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느끼셨던 것을 나눠주시겠어요.

최혜정 초이스북 대표: 기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에 기록하는 습관을 꼭 들이면 좋겠습니다. 사실 김점동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진 등과 같이 어떤 방법이라든지 기록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혜화 집행위원장: 시나리오 작가님은 기록이 없어서 뭐가 힘드셨을까요?

김지영 다큐작가: 저는 작가니까, 박에스터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박에스터의 생각을 빌어서 나는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가. 그런 걸 주목했습니다. 사실을 토대로 재현을 해야하고, 나레이션을 해야하고 이런 게 뭐이제 전문가들을 만나고 참고하는 책들을 봤을 때 오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주어진 자료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굵직하게 남아있는 박에스터의 삶, 업적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다루고 박에스터의 짧은 생을 표현했는데 시청자들이 박에스터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가진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가 명장면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뮤직비디오에는 가사로 나오는 “누군가의 빛이 나에게 비춰서 내가 그 길을 걸으면서 빛이 되겠다.”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지막에 박탐희씨가 박에스터 재현 배우인 정경희씨와 만나서 현화를 하고 안아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녀의 마지막이 어디서 어떻게 끝났는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박에스터를 만난다면 ‘너무 짧은 생을 살아서 로제타한테 헤어지는 인사도 못하고 환자들을 치료하지도 못한 그런 아쉬운 마음, 슬픈 마음 그리고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보시는 관객 분들, 시청자분들도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를 안아주고, 그녀를 대신해서 현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넣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도 빛이 되는 삶을 사세요. 우리는 누구나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이 박에스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혜화 집행위원장: 아, 그러셨군요. 올해 영화제 주제가 '이음'이에요. 서울 기독교영화제가 필름포럼이라는 복합문화공간이 생기면서 서울국제사랑영화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로 기독교 정신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래서 로고와 포스터에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를 많이 쓰는데, 올해의 하트는 점과 선으로 이어져 '이음'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에스더(Esther)/히브리어로 별이라는 뜻/유대민족을 구한 왕후의 이름”이라고 나오는데, 올해 포스터가 바로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의 이음을 크고 작은 별들로 표현하고, 그 크고 작은 별들이 이어져 별자리가 되어 이야기를 갖고, 이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컨셉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조선의 별, 박에스더가 남긴 선물>이 올해 주제와 너무 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6. 방영 시청률은 괜찮았나요? 소재가 너무 좋은데 극장용 다큐로 다시 만들 계획은 있나요?

배혜화 집행위원장: 제가 찾아봤는데 CTS에서 작년 12월 24일 본방, 그리고 12월 28일 재방이 있었고 올해 1월 8일 유튜브에 탑재가 됐어요. 조회수는 5개월 전 1만8천 회입니다. 극장용 다큐로 다시 만들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제선 감독: 지금 보신 게 극장용 다큐였어요. (웃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용을 더 추가하고, 연출자로서는 욕심이 끝도 없죠. 기회만 주신다면 제작해서 더 많은 분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최현탁 CTS 이사장: 극장용은 방송용에 새로운 자극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 관객이 10만 명을 넘지 않습니다. 영화에 대한 고민이 이런 부분인거죠. 우리는 하고 싶으나 관객 동원 문제가 있습니다. 박에스더 삶을 만든 이상 그 부분을 찾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에스더도 숨겨진 히든 스토리가 어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작된 기간과 비용 때문에 그렇지, 사실 욕심은 “이화인들과 함께해야 할 미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GV 후 A 세미나실

전날 개막식에 참석한 이화여교총동창회 이사형 회장님이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급하게 이대대 동창회장, 사업부장과 김영주 보구여관(한국 최초의 여성병원)장까지 모시고 와서 GV 자리가 더 빛났습니다. 자리를 옮겨 담소를 나누는 중 극장용이 제작되면 정동에 있는 보구여관 표지석과 이화여교 기숙사, 김점동관도 카메라에 담으시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를 통한 이음은 계속됩니다.

시네리뷰

기적의 과정을 지켜보는 영화, ‘브레이크쓰루’

복음주의 기독교인인지를 알려면 두 가지만 물어보면 된다. 첫째, 천국이 있음을 믿는가?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이 있음을 믿는가?
- C.S.루이스

1.기독교 가족영화라는 장르

배우 출신의 여성 감독 록산 도슨(Roxann Dawson)이 연출한 <브레이크쓰루>(Breakthrough)가 ‘돌파’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영화는 세상의 판단과 상관없이 기독교 신앙으로 죽음의 위기를 정면돌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살 존 스미스는 농구에 몰두하는 여느 중학생과 다름없지만 어렸을 때 과테말라에서 입양된 이력을 숨기며 학창 생활을 보내고 있다. 백인 엄마 조이스(크리시 메츠)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지만 이를 간섭으로 여기는 전형적인 십대 반항기가 한창인 나이다. 존은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얼음이 언 호수에서 장난치던 중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차가운 물에 빠진 채 의식을 잃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고 만다.

영화는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가족영화의 전형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7가지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1)신앙생활에 충실한 단란한 가족이라는 배경 (2)가족의 구성원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 (3)가족의 간절한 기도도와 (4)교회 공동체와 이웃의 협력하는 모습 (5)소생의 기적 (6)본인과 주변인의 신앙성장 혹은 가치관의 변화 (7)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2.기적에 이르는 신앙의 과정을 말하다

영화는 물에 빠진 아이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고 의학적으로 소생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깨어나더라 하는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인 간증 식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요6:1-15)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지만 굶주려 있는 군중들의 상황과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현실, 그리고 한 어린이가 주님께 바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의 소박한 음식은 모두 기적이 갖는 의미를 형

성하는데 필요한 사전 과정들이 켜진다. 마찬가지로 영화는 주인공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전의 일들을 때로는 복선을 그리고 때로는 기도의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기적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첫째는 기적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존재를 인식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임을 보여준다. 존을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든 소방관 토미 샤인(마이클 콜터)은 아무리 애를 써도 존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려던 순간 갑자기 ‘돌아가라!’는 음성을 듣고 존을 건져낸 일화를 고백한다.

둘째는 위기의 상황에서 기적은 기도 가운데 일어남을 영화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심폐소생술이 실패하고 의사는 아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눌 것을 권유받은 상황에서 존의 엄마 조이스는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울부짖는 기도를 올린다.

“성령님이시여,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존을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 아들을 구원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제발요!”

온 병원에 울릴 만큼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사랑과 믿음의 기도는 이 영화의 인상 깊은 장면으로 남아있다.

셋째는 믿음으로 함께 연합할 때 일어나는 기적은 당사자를 포함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존은 깨어난 후 자신을 구조한 소방관 토미로부터 “하나님이 있다면 널 위한 계획이 뭔지 몰라도 엄청 특별할 거야”란 말을 듣는다. 기적의 당사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납득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는 농구 팀에서 독불장군 슈터가 아니라 어시스트가 가능한 협력자로 변신한다. 조이스 역시 밤을 새워 침상을 지켜주며 기도해 준 제이슨 목사를 이해하고 그와 격의 없는 관계로 변화한다.

3. 위기의 인생 속 정답을 제시하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기적이란 여러 모양으로 돕는 손길의 참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건임을 묘사하고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린이의 작은 손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있기까지 수고한 작은 손길들이 적지 않았음을 영화는 결코 놓치고 있지 않다.

주人公이 출석하는 교회의 제이슨 목사는 예배시간을 통해 기적에 동참해준 사람들을 호명하며 일으켜 세운다. 그런데 소방대원들과 병원 관계자들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혹은 집에서 기도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기적에 동참한 사람들이었다. 전형적인 할리우드식 엔딩이지만 괜찮다. 비록 열두 광주리만큼은 아니더라도 눈물은 객석을 적시기에 충분하다.

글쓴이 : 강진구 교수 (고신대, 영화평론가)

시네토크:
강진구의
영화극장

강진구 교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을 모더니스트는 실제로 일어난 기적으로 보지 않고,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처럼 만나면서 변해야 한다는 그 의미만을 강조하면서 성경이 기록한 것이지 진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 C.S 루이스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주의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까?’라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뒷짐을 지고 계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이 영화는 기적을 다룹니다. 그런데, 기적을 다룬 다른 영화와 몇 가지 차별점이 있습니다.

우선, 죽었다가 살아난 존을 살펴봅시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존이 깨어났는데, 기적에 관련된 다른 영화처럼 거기에서 환영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존의 학교 선생님이 그러시지요. ‘나는 2년 전에 자신의 남편을 죽였다.’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존이 혼란스러워할 때, 존을 구해준 토미 사인이라는 소방관이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음성을 듣고 존을 구하러 갔다고, 그래서 존이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존의 어머니가 하는 기도입니다.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조차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은 존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이 기적에는 함께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엔 존을 살리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나는데, 결국 모든 사람이 동참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기적은 한 사람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일 뿐이지만, 그 이면에서 그 신앙에 동참하고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1. 모태신앙도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이 없을 때, 저런 기적을 경험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신앙의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진구 교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기도에 동참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을 이끌어 갈 때, 힘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코로나19 때문에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늘어나는데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 함께 느끼고 서로 교류하는 기능이 살아 있어야 하거든요. 영화에서 존이 기적으로 살아날 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공동체적으로 교회 생활이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본인 스스로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공동체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2. 기적을 경험하며 어머니가 자녀를 통제하려던 모습에서 변화되고, 아버지 역시 두려움이 많던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줘 이 영화가 일종의 자기와 가족, 공동체의 치유를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강진구 교수: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와 같은 기적은 드문 경우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어디까지 영화로 만들 수 있겠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결과가 무엇이냐와 관계없이 주인공 어머





니의 그 다음 모습이 담겨도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개봉한 한국의 기독교 영화 중에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요. 믿음이 좋은 성도가 암 때문에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여정 속에 신앙이 무엇인가를 관객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경우, 죽는 케이스가 많죠. 그러나 죽음 후, 남겨진 아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도 아주 훌륭한 기독교 영화입니다.

3. 미국 사회가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서 시작된 사회이고, 영화 속 존도 제삼 세계에서 입양된 아이인 것처럼 미국 사회 자체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사회인데, 이 영화제의 주제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음’으로 서로가 이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데, 최근 조지 플로이드로 시작된 미국 사회의 갈등을 보며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며 저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만나서 이음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강진구 교수: 미국인들 중에 성경적으로 사고하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소수의 신앙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만났던 미국의 크리스찬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계속 성장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영화 속 등장인물을 투사해 보며 성장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4. 저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 가족도 손을 잡고 식사기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 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학을 간 아들과 통화를 하는데 그런 신앙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안타깝게 느껴지던 차에 영화 속 “i’m standing with you.”라는 말이 와 닿았습니다. 저도 저 어머니처럼 제 아들 옆에 서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성령의 은혜로 아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진구 교수: 네. 어머니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가족이 손잡고 기도하는 이런 습관은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 하려면 어려우니 가능하다면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시네리뷰

콤포스텔라 성당 광장 앞, 재한은 전형적인 플라멩코 빨간 드레스를 입고 당당히 서 있다. 음악이 시작되면 카메라는 스페인 지중해 특유의 짙푸른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춤사위의 첫 포즈를 잡은 재한을 비춘다. 재한의 표정은 드디어 해냈다는 환희와 동시에 왠지 모를 슬픔을 함께 품고 있다. 그에 앞서 재한의 동료 다희는 왜 자신들이 한국에서부터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거쳐 여기에 섰는지를 서툰 영어로 그러나 차분히 핸드폰에 적어둔 원고를 또박또박 읽는다. 주위는 순례길을 마치고 기쁨에 환호하는 인파들로 가득하다. 개개인이 따로따로 혹은 무리를 지어서 삼삼오오 앉아있거나 어깨동무하며 군무를 춘다. 카메라는 광장에 모인 사람들 속에서 플라멩코를 추는 재한을 함께 보여준다. 각자가 저마다의 일로 모두 바쁘다. 그중에 재한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마지막 목적지인 콤포스텔라 광장에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플라멩코를 춘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 광장 안의 다양한 인간 군상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 없는 듯 자기들 일에 열중하는 모습에 대비되어 재한이 플라멩코의 엔딩 포즈를 취할 때 카메라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 파란 하늘은 다시 지중해를 바라보는 재한과 다희 앞에 펼쳐진다.

재한은 시각장애인이다. 다희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다. 재한은 플라멩코를 춘다. 언젠가 스페인에서 자신만의 플라멩코를 추고 싶다. 다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꾼다. 영화 <산티아고의 순례길>은 이 둘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의 여정을 동반자로 함께 완주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연출한 이종은 감독은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주인공역(프랭크 슬레이드 대령)을 한 ‘알 파치노’와 극중 고등학생인(찰리 심스) ‘크리스 오도넬’의 우정을 모티브로 ‘만일 그 둘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여행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영화를 기획했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와는 다르게 플라멩코를 추고 싶어하는 중년의 시각 장애인 여성과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는 여학생 다희의 여정으로, 오히려 영화보다도 극적인 캐릭터들이 만났다. 한 사람은 그녀의 눈으로 다른 한 사람은 인생의 선배로 순례길을 완주하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여행한다.

그러나 여행길은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 낙관적이거나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혹은 서로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뚫고 그들이 도착한 곳, 콤포스텔라 대성당 광장에는 그들과 함께, 저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야고보의 순례길을 완주한 순례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만끽하고 있다. 제한과 다회도 그들과 섞여 있지만, 자기들의 방식으로 플라멩코를 추며 종착지에서 마무리한다. 인생이 그러하다. 결국, 삶이라는 여정은 스스로 뚫는다. 이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음의 여정을 떠나야만 하고, 떠난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향해.

글쓴이: 조현기 프로그래머(서울국제사랑영화제)

시네토크

참석자: 이종은 감독, 배영호 피디, 박재한 배우

모데레이터: 조현기 프로그래머(서울국제사랑영화제)

조현기 프로그래머: 세 분에게 질문을 공통적으로 드려봐야 할 것 같아요. 순례길은 거기를 다녀온 전하고 후하고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작진과 출연자분들께서 갔다 온 후의 마음이랄까요, 그런 것들 한번 나누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종은 감독: 네, 순례길이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는 큰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걷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달라진 자신의 모습들,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가 ‘달라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아, 무사히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라는 게 끝을 알지 못하고 가는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저희가 같이 가는 제한씨의 경우에는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았고 여정 내내 저희가 어떤 연출적인 부분이라든가, 영상적인 부분이라든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가장 큰 고민은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죠. 이 서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지만, 중간에 안됐을 경우에 혹은 영화 중간에 한 번 드러나지만, 포기하는 순간이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끝까지 완주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었고 마지막으로 플라멩코를 쳤을 때, 그 안도감이 이 영화를 보셨던 관객 분들이 느끼셨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한 배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혹독한 순례길이었는데 나중에는

제 몸이 그걸 알아서 또 받아들여서 끝까지 완주했던 기쁨의 순례길이기도 한 만큼 지금과 그때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면 저는 도전 정신이 조금 투철한 편이기도 한데 지금 앞에 닥쳐 있는 길에 대한 용기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신감이 조금 더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더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호 피디: 저는 사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제작진들과 짐, 이런 것들을 싣고 봉고차를 운전했기 때문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제대로 걷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의 순례길에서 소망하는 것은 영화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외국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여기 왜 왔느냐’와 같은. 현재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계신 분들은 제로(0)입니다. 해마다 매일마다 마지막에 인증서를 끊어주는 곳이 있어요. 현재 완주증을 받은 사람이 0명으로 뜨는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세계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 길을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조현기 프로그래머: 감독님께 여쭙보고 싶은데,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종은 감독: 가끔 여러 군데에서 다큐멘터리에 관한 소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찾게 되는데 과거 영화 중에 하나인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알 파치노가 후천적인 시각 장애인이고 그 때 이제 동행하게 되는 파트너가 십 대인 고등학생 남학생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강렬한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동행’이라는 부분이 존재할 것만 같았고요. 그 상상을 가지고 그런 인물들을 찾아봤는데 어렵지 않게 소개를 받았어요.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갈 만한 시각 장애인 분이 계시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때까지는 박재한 씨가 어떤 분인지 몰랐죠., 프로듀서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플라멩코를 한 10년 동안 배워오신 분이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운명적인 만남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스페인 하면 플라멩코 아니겠어요?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더군다나 카톨릭 신자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순례길을 걸어서 콤보스텔라 대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자기가 10년간 배워왔던 플라멩코를 선보이는 것이 꿈이었던 분을 만났다는 것에 있어서 저희한테는 여호와의 길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받았습시다. 그리고 주인공이었던 다희의 경우도 사연을 찾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대안학교 학생이라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메이크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10대 소녀였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멩코가 춤이라는 운동성도 있지만 메이크업에서 보여지는 강렬한 예술적인 표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다희가 그걸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 정말 이 영화를 위해서 준비된 만남이라는 느낌

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두 사람의 여정을 통해서 각자가 갖고 있지 않은 결핍들, 다희는 인생의 시간에 대한 결핍이 있을 것이고요. 재한 씨의 경우에는 시각에 대한 결핍을 서로가 메꿔주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바라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현기 프로그래머: 세 분께 공통된 질문을 한 가지 드리자면, 영화 속에서 본인에게 가장 애착이 가는 그런 장면을 한 가지씩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종은 감독: 저는 가장 놀라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먼저 보내고 나서 다희가 ‘화이팅’이라는 돌에 글씨를 쓴 거를 보고,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두 조로 나눠서 갔기 때문에. 다희를 따라가는 카메라가 하나가 있었고 저는 박재한 씨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다희를 따라갔던 친구한테서 인터넷 전화가 왔어요, ‘감독님 이쪽에 있으니깐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라고. 사실 귀땀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한 씨한테는 말을 해주지 않았죠. 오르면서 걱정을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보려고 했지, 나중에라도 이 마음을 알려줘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재한 씨가 그걸 보고 어떤 이상한 기운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놀랐고 재한 씨도 이게 맞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한 번도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만져보고 누가 썼는지를 알고 그런 부분들, 저도 미처 보지 못했었던 부분이었지만 다희가 돌에 글씨를 쓰는 걸 보고 굉장히 울컥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통한다.’라는 부분일까요. 울컥했었고 마지막 장면에서 플라멩코를 추고 환희에 빠져있는 표정이 인상적이었고 그 뒤로 무심히 흘러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대비되면서 또 다른 어떤 에너지를 내는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한 배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카톨릭 신자고 산티아고 순례길 또한 가보고 싶었던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 평소에 걷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 정말 차 타고만 다니는 걸 좋아하고 특히나 낯선 길을 넘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걷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플라멩코의 본고장이라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이고 제가 꼭 한 번은 플라멩코를 그곳에 가서 배우고 공연도 해보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지막, 콤보스텔라 대성당에 가서 본 인들이 기쁨을 환희를 느끼는 그런 곳이잖아요, 마지막 도착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주를 하고서는 온 사람들끼리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딱 ‘나는 다 걸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플라멩코를 그곳에서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드레스도 준비를 해서 가고 그랬었거든요. 다 걸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게 너무 기뻐거든요. 기쁨을 저는 그곳에서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 기쁨을 제 마음대로 춤을 찼던 거예요. 뭔가를 ‘계획을 했던 것을 제가 해냈다.’라는 자부심도 있고 뿌듯함도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영호 피디: 이거는 영화 개봉한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이제 개봉을 3월 19일에 했는데 코로나19때문에 사실은 많은 관객 분들이 보지는 못하셨는데, 영화 보시면은 그 팡골로나에서 출발해서 3-4시간 거리에 파르돈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파르돈이라는 게 영어로 파든(Pardon) 그 뜻이거든요. ‘용서의 고개’라는 뜻인데 그 고개에 미치기 바로 직전에 재한 씨하고 다희가 궁서체로 ‘빛’이라는 글씨를 쓰잖아요. 그거를 어떤 분이 영화를 보고나서 후기로 블로그에다가 자기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지나면서 한글로 ‘빛’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신기해서 찍어가지고 온 거죠. 이 분이 저희 영화를 보고 내가 봤던 그 ‘빛’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 ‘빛’이 창조된 과정을 보고 너무 신기하다고 블로그에 올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글씨가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일상적이지만 참 특별한 영화입니다. 순례길 준비물 중에 제일 쓰임새가 큰 건 무엇이었나요? 제가 재한씨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완주를 할 수 있을까요?

박재한 배우: 제가 순례길을 하고 있는 중에 한국 분들을 여러 분들을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70이 넘는 어르신 분들께서 완주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콤포스텔라 대성당 앞에서도 저한테 플라멩코를 추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쳐가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격려까지 해주셨던 어르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관절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리가 될 수도 있으나 그런 분들은 쉬엄쉬엄 가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가보라고 추천 꼭 해드리고 싶어요. 마올마다 성당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고. 저한테는 정말 안 갔으면 후회했을 뻔한 순례길입니다.

2. 영화제작을 위해 총 며칠을 보내셨나요?

배영호 피디: 전체 일정은 아까 재한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20km씩 걷는 걸로 해서 전체가 800km니까 34일 정도에 맞게 안내 책자에 나와있기는 한데 자신에 맞게 하시면 되고 전체 촬영은 한 달 했습니다. 사실은 전체 800킬로를 걸으려면은 34일을 촬영을 해야 하는데 출연하시는 분들 전체 스케줄도 있고 해서 앞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센장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룬세스 바에스 산책 코스까지, 사실 거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거기를 포함해서 앞부분에 20일 걷고 중간에 메세나 대평은지대라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평온만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저희가 차량으로 건너뛴 다음에 전체 800킬로 중에서 반 정도가 실제 일정이었는데 400킬로도 사실은 적은 거리도 아닐 뿐더러 산티아고 순례길 공식 사무소에서는 그 사리아에서부터 콤포스텔라까지의 120킬로 정도만 걸으면 완주증을 끊어주기 때문에 박재한씨가 완주증을 받을 자격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3. 재한님은 어떻게 그 글씨 ‘화이팅’을 알았나요? 느껴지셨나요? 콤포에 도착해서서 막 우셨어요, 왜 우셨나요?

박재한 배우: ‘화이팅’이라는 글씨는 이게 바닥에 걷다보니까 돌들이 조금 있는데 느낌이 딱 발로 느껴졌을 때 이걸 뭘 글씨가 있는 듯한 그 돌의 느낌이 밟혔었어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그냥 평범한 돌 같지는 않은데.’라며 제가 손으로 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영문인가? 그러다가 아닌데, 이거는 한글 같은데 라면서 자세히 만져보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화해’인가? 라고 하면서 만

저보다 보니까 끝에 또 한 글자가 만져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파이팅이구나, 이 걸 누가 썼을까.’ 하다가 아, 앞에 간 다희가 내가 아무 걱정 하지 말라고 써놨구나. 다희가 저를 계속 서포트하고 옆에 돌이요, 똥이요 이모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그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지만 정말 잠시라도 다희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편하게 가라고 보내준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그 앞에 가서 개가 이모 힘내라고 파이팅이라고 썼더라고요. 이거 분명 김다희가 썼을 거라고 그러면서 저도 역시 글은 잘 쓰지는 못했을지라도 돌을 하나 주어서 ‘다희야 사랑해’라는 말을 제가 또 썼어요. 그리고 광장에서 눈물이 나왔던 건 처음에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엄살 아닌 엄살, 낯선 곳에서의 여정들이 너무 힘들고 그 곳에서도 소외 당하는 듯한 그 느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몇 배로 느껴졌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괜히 제가 속이 웅졸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거기 가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과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것에 되게 의기소침해지고 예민한 그런 시기였어요.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건 몸에서 받아들여서 ‘아! 어차피 내가 온 이상은 해야 하는 일이고 끝까지 완주를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바꾸고 중간에 신부님한테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모든 분들이 느끼는 것들이 눈물의 길이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힘들게 느끼는 거구나, 장애인, 비장애인 그런 편견없이 느끼는 바는 다 같은 거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나서는 기분이 좋아지고 제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니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끝에 나팔소리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그런 상황들이 막 가까이 오다 보니까 제 가슴에서 ‘아, 내가 원하던 거를 다 이루었구나.’라는, 사람들이 못할 것 같은 걸 제가 해낸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마등처럼 막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피레네 산맥 정말 거기 올라갔다 내려올 때 바위 하나하나 정말 기어 내려오다시피 했는데, 저는 사실 높낮이가 달라서 넘어질까봐 겁나서 다리에 있는 대로 힘을 주고 내려와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기쁨의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처음에 힘들었을 때는 다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정말 기뻐서 울더라고요. 그러고나서 내가 원하는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플라멩코를 춰야지 이 생각을 하니깐 너무 좋아서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4. 2016년 9월에 34일간 산티아고를 다녀왔습니다. 론세스바에스에서부터 버리고 가는 순례자들의 물건들을 보고 ‘비움의 길’임을 체득하며 비오는 날 피하기보다 오히려 물방울의 터치를 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주인공의 물질치료장면은 저의 콧등을 시큰거리 고통을 극복하는 의지에 감동되었습니다. 까미노길 위에 ‘화이팅’ 돌로 쓴 글이 큰 격려가 되었으리라 감이 오네요. 잘 걸으셨어요. 피니스테라 0km지점에서 벗어놓고 온 신발이 ‘손’이라는 멘트도 울컥거리게 했어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 시리라 믿습니다.

5. 잘 만들어진 버스킹 프로그램들에 비해 광장에서 플라멩고 장면이 상황 그대로를 보여주어서 더 감동적이고 인상깊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쁨에 분주해서 더 많이 봐주지 않아 안타까웠는데 그것이 오히려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너무 아름답고 당당하신 모습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함께 해주며 영어로 소개해준 다희씨가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조현기 프로그래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산티아고의 순례길이 야고보의 순례길이었잖아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작품들을 내놓지 그리고 재한님도 마지막으로 관객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은 감독: 다음에 할려고 하는 작품 역시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누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찬찬히 들여다보는 그런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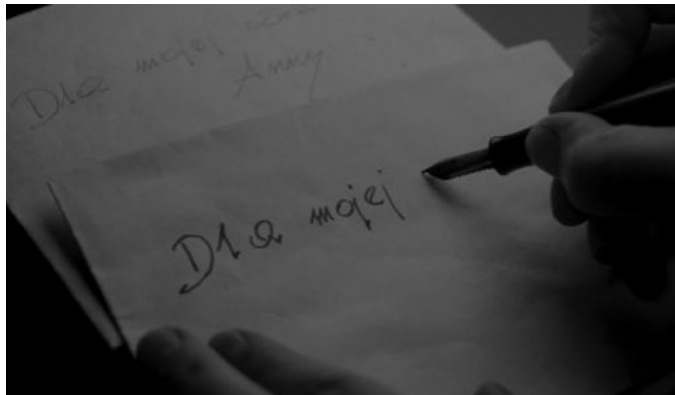
박재한 배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을 걸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저 자신을 찾고 싶었던 그런 소중한 길이기도 해요. 걸으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었고 영화 속에서도 말했듯이 장애인 비장애인은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고 사람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를 겪어 봐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은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즘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도전을 할 것이고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멋진 세상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들도 도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예요. 저는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더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영호 피디: 이종은 감독님과 다큐 하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큐라는 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다큐라는 건 저희가 캐스팅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거든요. 이 감독님이 처음에 다큐를 했던 게 <사막의 두 남자>인데 항상 그런 영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약자와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막의 두 남자>는 대기업에서 일에 혹사당해서 두 번이나 뇌종양을 앓아서 반신불수가 된 김용빈 부장의 얘기였고 <시인 할매>는 나이 70 넘어서 한글을 깨우치시는 할매들 얘기였어요. 다큐가 이분들의 삶에 또 영향을 주더라고요. 김용빈 부장은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다큐를 찍고 복직을 했고요. 시인 할머니들은 그렇게 즐겨보시던 KBS 아침마당에 초대받으셨었고요. 재한 씨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다큐 주인공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네리뷰

데칼로그 4: 네 부모를 공경하라

키에슬로프스키의 데칼로그는 십계명의 각 계명을 다루는 연작 시리즈이다. 이번 영화제에서 소개된 작품은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를 다루는 <데칼로그 4>이다. <데칼로그 4>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식의 내용이 아니라 근친상간의 매우 충격적인 주제로 이 계명이 지니는 함의를 포착하려고 한다. 연극영화학과 여대생인 앙카와 아버지 미할은 여느 부녀보다 친밀하다. 어느 날 앙카는 출장을 간 아버지 미할의 책상 위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편지 한 장을 발견한다. 결봉엔 “내가 죽고 나면 개봉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앙카가 편지 내용을 확인하려고 호숫가에 앉아 결봉을 뜯으려 할 때 호주 저편에서 쪽배를 탄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사나이가 노를 저어 다가오고, 불안한 눈빛으로 앙카를 주시한 후 사라진다. 다음 날, 연기 수업에 여주인공 역을 맡은 앙카는 지도교수와 다른 학생들 앞에서 연기하지만, 그 역이 제대로 되지 않자, 지도교수는 앙카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신을 잊고 맡은 역에 몰입해보라”. 한편, 앙카는 엄마의 편지를 읽지 않은 채, 조작하여 편지에 미할이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니 자신을 여자로서 대해달라고 말한다. 앙카는 사실 아빠에게 여자로서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러나 아버지 미할은, 아버지로서의 그의 ‘역할’에 흔들림이 없다. 요지부동하지 않은 아버지 앞에서 도리어 수치심을 느낀 앙카는 왜 내게 그런 편지를 놓고갔는지 묻자, 아버지 미할은 엄



마 곁에 있는 자신과 한 남자가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양카의 아버지인지 알 수 없지만 진정 그녀의 아버지로 남고 싶어 편지를 남겨놓았다고 말한다(영화 끝까지 어머니가 남긴 편지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는다). 깊은 부정(父精)을 이해한 양카는 자신이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읽지도 않고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하며 미할과 양키는 어머니가 남긴 진짜 편지를 불태우고 만다. “사랑하는 딸에게. 너에게 매우 중요한 말을 하겠다. 미할은...”이라는 문구만 남긴 채로.

근친상간이라는 파격적 소재가 중심인 <데칼로그 4>는 고도의 상징들로 가득하다. 이번 <데칼로그 4> 시네토크를 맡은 정성일 영화평론가는 데칼로그 시리즈 모두가 고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하나의 큰 그림들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정성일의 분석대로 데칼로그 전체가 그러하듯, <데칼로그 4> 역시 궁극적으로 인간의 욕망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데칼로그 4>는 인간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이며 인간이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최초의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통해 욕망의 다스림이 신에게서 멀어지려는 자만을 극복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철학자 김용규는 역시 그의 책 <데칼로그>¹⁾에서 <데칼로그 4>가 하나의 질문을 시종일관 우리에게 묻는다고 말한다. 인간됨이란 결국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만을 극복해야하는 것이며 부모공경의 계명이란 자기 본분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 인간은 자만으로 인해 신으로부터 돌아섰기에 복종을 통해 신에게 돌아가야 한다. 바울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엡 6:1)는 구절은 모든 권위에 대한 공경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 공경을 위한 방법임을 분명히 한다. 어머니가 남긴 유서를 조작한 사건을 통해 양카가 얻은 것은 미할이 자신의 친아버지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아니다. 양카는 미할을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남자로서 대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본질임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인간 욕망의 자기 극복만이 관계의 파국을 막고 해방과 자유의 문을 열어준다는 이 존재론적 명제에 대해 영화 <데칼로그 4>는 그 하나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

글쓴이 : 백광훈 목사(문화선교연구원장)

1) 김용규, 『데칼로그』, 291-307(서울: 포이에마, 2015), 281-307쪽.

시네리뷰

백 년의 기억, 거울 앞에 선 기억

남과 북을 오가며 각각의 인터뷰를 모아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그 자체로 관심 이 갔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북한 아니던가? 개인적으로 북한정치를 전공 자로서 한 번도 북한을 방문하지 못하고 북한문헌과 북한 밖 사람들의 인터뷰 로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궁금했다. 북한을 어떻게 그릴지, 그리고 남 과 북을 어떻게 대조할지.

역사를 다룰 때,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남과 북의 현대 역사 를 비추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리에게도 깊은 고민이다. 이 영화는 남과 북 분기(分岐)의 역사를 다루지만 분단부터 시작하지 않는다.(그랬다면 영화 제목은 ‘70년의 기억’이 되었으리라!) 그 이전의 기억, 일제 식민시기까 지 거슬러 올라가 시작하면서 더 넓은 맥락을 짚어내려 한 부분을 볼 때, 결코 프랑수아 감독은 한반도 역사를 가벼이 알거나, 쉬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영화는 다름의 역사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남과 북 출신의 인터뷰 이들이 상대를 규정하고 자신의 역사를 짚어내는 방식은 묘하게도 거울같이 서로 비슷한 돌을 비추어준다. 백 년의 기억의 내용은 다르지만 서사의 구조 와 흐름은 비슷하게 흘러간다. 더더욱 양측의 국가 개발, 발전 경쟁, 카리스마 리더십, 우위에 점한 일방이 다른 한 쪽을 대하는 태도 등을 보면 서로 닮아있 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오히려 제3자의 시선이기에 설득력은 배가된다. 이 점이 이 영화의 힘이다. 양측 모두 지도자(박정희, 김일성)를 잃고 흘리는 일반인들의 눈물을 비추는데 이 장면은 잔잔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기계적 균형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감독 스스로 파트 (part 1,2)를 나누어 후반부에는 특히 1990년대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그린다. 적절하게 시대 시대 마다의 인터뷰를 차용하면서도 세세하 게 주요 사건을 짚고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그려낸다. 한반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현실 안에 살고 있기에 세세한 맥락을 자신에 맞게 맞추고, 자신의 입장에서 기억을 편집하기도 한다. 감독은 정말 성실하게 사건 과 인터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몇몇 기억은 증폭하여 마음에 새기고, 몇몇

기억에는 무딘 칼날을 들이대며 대충 넘긴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그래서 제3자가 전하는 시선은 내부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다.

물론, 누군가는 이 영화를 두고 아쉬움을 드러낼지도 모르겠다. 우선, 이 영화는 100년의 역사를 살핀 나머지 어떤 임팩트없이 무뎠하게 서술하다가 마친다. 그런데 제3자이기에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조심스러웠을 것이라 이해한다. 외부자이다보니 국제적 맥락은 잘 살리되, 내부자가 느끼는 감정을 잘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쉬움일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뿌리박은 분노와 적대, 한(恨)의 깊이를 이 영화는 비껴간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 120분 동안 한반도의 역사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다면, 북측 사람들의 인터뷰였다. 북측의 대변자로만 쳐다보고 논리적 반박만 하려 하면 이 영화를 보는 하나의 재미를 놓치게 된다. 그들도 사람이다. 인터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개인의 고민, 애국심, 나름의 해석이 녹아 있다. 남측 인터뷰이의 배경을 생각하고 그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정말 여러 생각을 하게 되듯이 북측 인터뷰이의 발언 또한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보면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주지 않을까 싶다.

글쓴이: 이창현 사무국장(한반도평화연구원)

시네토크
with
한반도
평화연구원
(KPI)

참석자: 이우영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추상미 감독(서울국제사랑영화제 부집행위원장)
모데레이터: 심혜영 교수(한반도평화연구원 운영위원, 성결대학교)

심혜영 교수: 안녕하세요, 서울국제사랑영화제와 함께하는 KPI 시네토크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감독이 우리 한반도의 현대사를 이렇게 온갖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서 재구성해 우리 앞에 2시간짜리로 보여주는 걸 바라보는 느낌이 굉장히 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조망한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한반도가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백 년의 기억>을 가지고 영화 쪽에 대해 말씀해주실 추상미 감독님, 북한 대학원에서 북한 연구를 하시는 이우영 교수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화, 어떠셨어요?

이우영 교수: 굉장히 좋은 공부 거리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2시간 안에 우리 남북 관계나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왜 100년 동안 이라고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자괴감과 주변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균형잡힌 시각이었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하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한계라고나 할까요. 사실은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 우리가 안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심혜영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의 시간을 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의미를 짚어내고 균형적인 관점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감탄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우영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그물의 구멍이 촘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우리가 느끼는 부분을 담아낼 수는 없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감독인 피에르 올리비에 프랑수아가 한반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가지고 인터뷰도 많이 했었더라고요. 추 감독님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하시던데, 프랑수아 감독에 대한 소개와 영화 제작자의 관점에서 이 영화 보시면서 느낀 것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상미 감독: 프랑수아 올라비에 감독님은 제가 2019년에 평창국제영화제에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만든 <폴란드로 간 아이들>도 영화제에 출품했는데 프랑수아 감독님의 영화도 동시에 출품이 됐었습니다. 저는 프랑수아 감독님의 영화를 못 본 상태였고, 프랑수아 감독님은 제 영화를 본 상태여서 스태프를 통해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2-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영화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저도 답을 하는 과정에서 수십 번 북한에 다녀온 걸 알게 됐어요. 프랑수아 감독님은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다큐멘터리 작품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도 있어요. 영국의 코미디언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남한과 북한에 관한 관심이 생겼는지를 물었는데, 그 대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동생이 한국에서 입양이 된 고아 출신이더라고요. 그 여동생에 대한 애정이 극진했습니다. 이 여동생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여동생과의 갈등 후 동생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아이들을 왜 다른 나라로 입양을 보냈을까?’라는 한국의 역사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공부하

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와 관련된 동북아시아 정치로 전공을 했고, 기자가 되었을 때도 동북아시아 전문 기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생기고, 대한민국 남과 북의 역사를 알리는 일에 정말 애정 어린 관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욱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졌고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프랑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전세계가 도와야 할 일이지, 통일이 절대 남북한이 자기들만의 힘과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바람을 저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또 영화를 보면서 프랑수아 감독님의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인지 그런 부분에 많이 집중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의미가 있었던 게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위치에서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계인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역사를 들여다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심혜영 교수: 영화를 보면서 시작하고 끝이 같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2018년에 한반도 평화와 안보 문제에서는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다시 ‘아 정말 어려운 길이구나.’ 그런 과정을 보여주지요. 추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이 동북아의 평화이자 세계의 평화이고 국제적인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해주는데요, 이우영 교수님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통일될 수 있을까요?

이우영 교수: 저는 통일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했던 통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원내 탈북청소년 교육기관의 이름이 ‘하나 둘 학교’입니다. 출발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면서 둘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예전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떨어지는 이유는 북한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단일성에 기초한 통일 개념 자체를 버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보다는 탈분단과 평화를 기초로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추상적으로, 관습적으로 생각했던 통일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통일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統一)’이 아닌 ‘통이(通異)’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 적대적인 삶 이런 것들을 거둬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심혜영 교수: 추 감독님은 <폴란드로 간 아이들> 하신 후에도 북한 청년들, 청소년들과 함께 영화 제작도 하고 계시죠?

추상미 감독: <폴란드로 간 아이들>의 극 장편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만들면서 폴란드 선생님들이 북한의 고아들을 왜 자발적으로 감싸주고 사랑해주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국가의 명령으로 북한의 전쟁고아들을 교육하고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강제적인 상황인데도 폴란드가 이미 겪은 전쟁의 상처로 인해 연대가 형성되고 북한의 고아들을 이해하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순수한 상처의 연대예요.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해 통일에 관해 말할 때, 민족적인 정체성만으로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있는 3만 명이나 되는 탈북자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통일에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이 남북한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의 정책은 없을까, 그런 작은 움직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심혜영 교수: 이 영화가 어떤 부분에서 교육적인 가치가 있을까요?

이우영 교수: 일단은 남북한의 관계를 2시간 안에 정리를 해줬고 중립적으로 담담하게 우리가 듣기 어려웠던 북한 입장까지 잘 축약해서 정리해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잊혀진 크고 작은 남북한 관계의 성과들, 이야기거리를 제공해준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혜영 교수: 북한을 생각하면 통일을 해야 하지만 북한 체제를 생각했을 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우영 교수: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봐요. 마치 우리가 뒷사람인 듯 행동하지 말아야 하죠. 일단 변화는 그들이 스스로 변해야 가능할 것이고, 주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정도가 있겠죠.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해 신뢰를 쌓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인권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세계 인권 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규약과 B 규약이 있는데,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이 B 규약입니다. 정치, 사회 쪽입니다. A 규약은 경제 사회적 규약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정치적 억압을 받고 있다고 해서 북한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반인권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폭넓게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혜영 교수: 지금 말씀하신 그 ‘신뢰’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은 남북 관계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객과의
대화

1. 영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식적인 측면만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지 텍스트만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심혜영 교수: 저도 교과서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가슴을 울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추 감독님께서 보실 때, 영화적인 관점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추상미 감독: 저는 이분이 아티스트가 아니라 기자 출신이었고 자기가 북한에도 수십 번 들어갔을 때,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나열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하기를, '이게 감동을 주는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감동을 주는 다큐멘터리가 많아 그런 작품에 비해서는 차갑고 건조해 보이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이러한 지식이 가려진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화법으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선함을 줄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편협된 시각을 교정할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2.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70년이 넘는 지금 남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회경제적 차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북 간의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을 부각해야 하나요?





이우영 교수: 저는 동질성을 기반으로 해서 통일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하면 되죠. 자꾸 틀린 것을 같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동질성은 계속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틀리고, 형제 간에도 틀립니다. 요즘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을 보고, 요즘 애들 너무 틀려 그럽니다. 그 면에서 보면 다른 건 다르다고 인정하고, 틀린 건 싸울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3. 영화 말미에 러시아학자가 통일은 비용이 많이 든다며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15배에서 40배에 달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 최고 격차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 아닌가, 북한은 집과 직장을 국가에서 해결해주기 때문에 이를 남한의 화폐가치로 바꾸면 2만불대로 추정해야 한다고 방북한 해외동포들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우영 교수 : 삶의 격차에 대해서는 복잡한 면이 있는데요, 전체국력으로 봤을 때는 50:1로 보고 있고요. 1인당 GNP로 보면 15:1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1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방비는 20:1의 차이가 납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연애든, 동거든, 결혼이든 같이 살려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비슷해야 합니다. 결혼이 아닌, 옆에 있는 친구로 지내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합니다. 사실 북한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득을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차 문제에 있어서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생각합니다.

4. 탈북자들과 관련해서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에 관해 알고, 남한 사람은 북한 사람을 얼마나 알까요? 너무 모르는 게 많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시나요?

추상미 감독: 탈북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탈북한 사람의 대부분이 국경 지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 청년들이 겪은 것들을 다 알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찍으면서 이송 배우와 제가 같은 방에 묵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환경은 달랐지만, 이송 배우가 남한에 와서 겪은 우울증과 제가 겪었던 우울증으로 소통이 됐어요. ‘너무 외로워서 죽고 싶다.’라는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이송 배우도 14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저도 14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상처의 연대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가 시작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느냐?’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적인 얘기를 하자면, 지금 세계에서 진정성으로 영화를 만드는 거장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룹니다. 빈부의 차이든, 인종의 차이든, 체제의 차이든 모든 영역에서 극단화되어가고 있는 세계에서 그 다양성을 어떻게 끌어안고 수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며 영화를 만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의 70~80 퍼센트의 감독이 이 문제에 집중해서 영화를 만들더라고요. 그만큼 이것이 최대의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통일이라는 주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경험, 극단에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돌파구를 내놓을 수 있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통일은 남북의 문제가 아닌, 어떤 차이에 대한 문제이고, 어떤 극과 극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에 관한 전 세계의 이슈에 가장 정점에서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문화예술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기록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초청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는 수많은 불공정한 세상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나와는 다른, 나와는 차이 나는 계급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서 복음이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는지를 논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도 하나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나 문화예술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혜영 교수: 이번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주제가 ‘이음’인데요, 전 세계가 연결되고 세계가 하나라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분리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와 기술은 세계화를 추구하고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기 나라를 생각하는 것, 내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이음’이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제1]

리키와 다니엘, 그리고 한국 사회와 교회

성신형 교수(송실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일찍이 리프킨은 노동이 종말 되는 시대를 예언하였다. 혁명적인 신기술은 노동의 종말 시대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는 인간에게 새로운 유토피아의 시대를 기대하게 만든다. 그러나 과연 인류에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리프킨은 새로운 인간 정신에 기초한 사회 변혁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²⁾ 리프킨의 통찰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한다. 인간은 유토피아 시대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지만, 점점 더 커지는 유동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인간은 유토피아를 향한 꿈 대신 디스토피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현실은 인간에게 과거를 회상하는 레트로토피아(retro-topia)를 떠올리게 만들 뿐이다.³⁾ 한편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노동의 종말’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다. 자영업의 붕괴와 실업의 증가는 노동의 의미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조건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본 글은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제공해주는 두 편의 영화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위기로 찾아온 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한국 교회의 실천적인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글은 켄 로치 감독의 <미안해요 리키>와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두 주인공의 리키와 다니엘의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한다.

2) 제리미 리프킨, 이영호 역 『노동의 종말』 (서울: 민음사, 1996, 2005), 361.

3)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역 『레트로토피아』 (파주: 아르테, 2018). 서문.

2. 노동의 의미

두 사람에게 노동이란 어떤 의미일까? 다니엘은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자부심이 꽤 강하다. 평생을 목수로 살아온 그는 심장병으로 쓰러져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려고 하고 있다. 숙련된 노동자의 자존감이 드러나는 그의 행동과 말에서 품위가 느껴진다. 거기에 더해진 성실함은 존경심까지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한편 리키는 노동은 없고 생존만 남아 있다. 그래도 2008년 경제위기로 집과 직장을 잃고 건설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조금 더 안정적인 일을 찾기 위해서 택배회사로 들어간 리키는 플랫폼 노동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꾸준하게 일을 잘 수행해 나간다. 그는 ‘실업수당은 받은 적이 없고, 그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묵묵히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마침내 꽤 괜찮은(?) 수입이 생길 만큼 일도 많이 배정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간다.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그 틈은 여지없이 큰 균열을 만들어버리고, 늪처럼 헤어 나올 수 없게 만든다.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남은 것은 이것뿐이다. 다니엘은 생존을 위해서 애쓰는 리키가 몹시 안쓰럽다. 부러진 몸을 일으켜 운전대를 잡고 나가는 리키를 돌려세우며 ‘그만 하라’고 외친다. “리키! 너는 택배 기사가 아니라, 리키야! 리키라고! 이제 그만 차를 세워!” 한편, 리키의 눈에 다니엘은 어떻게 비쳐졌을까? 심장병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실업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고용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력서를 들고 이리저리 다니는 다니엘... 비록 컴퓨터로 잘 다듬어서 만든 이력서는 아니지만, 이 이력서를 보고 그를 채용하겠다고 하는 고용주의 전화에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다니엘... 어쩌면 리키의 눈에 다니엘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신세로 보이지는 않았을까?

과학 기술의 발달로 변화된 상황이 만들어낸 오픈 현실 속에서 두 사람의 노동의 모양은 차이가 크다. 평생 매우 전통적인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해왔던 다니엘은 그 흔한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 사용법도 모른다. 실업수당이든 고용보조금이든 정부 기금을 받아서 생활해야만 하는 다니엘에게 찾아온 위기는 인터넷을 통해서 기금을 신청하는 일이다. 천신만고 끝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에 성공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35시간가량 구직 활동을 해야만 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복지사의 설명에 이력서를 들고 다니면서 기금을 받기 위한 의무적인 활동(?)을 하지만, 이번에는 그 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위기를 만난다. 스마트폰만 있었으면 해결될 문제가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다. 손으로 하는 노동으로 평생을 살아온 다니엘에게 새로운 기기는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그는 평생 목수다. 하지만 리키는 다르다. 직장을 여러 번 바꿔본 풍부한 경험의 소유자 리키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택배회사에서 매우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그의 손에

주어진 전지전능(?)하신 총(택배기사들의 스캐너)은 그를 유능한 자영업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이 분은 리키를 배신한다. 뜻밖의 폭력 사건으로 부서져버린 이 분은 리키에게 더 이상 전지전능하신 신이 아니라, 갇아야 할 또 다른 빛이 되고 말았다. 이는 플랫폼 노동의 슬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2분 정도 쉬는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는 택배 노동자의 삶은 플랫폼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감시당한다. 그렇게 극단적인 노동 현실로 내몰려진다.⁴⁾

한편 또 다른 의미의 노동 이야기를 리키의 아내 애비와 다니엘의 새 이웃인 케이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이들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리키의 아내 애비는 남편의 수입만으로 충분한 생활이 어렵기에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없이 일을 한다. 그녀는 몸이 불편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남편의 택배 차 구입을 위해서 자신의 차도 팔아버리고 하루 종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시를 누빈다.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쉬 없이 달려야 한다. 한편 다니엘은 복지기금을 신청하기 위한 공공 커뮤니티 센터에서 우연히 케이티를 만난다. 그녀는 두 어린 아이와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이 젊은 여성에게 적당한 일은 없다. 결국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선택하고 만다. 아무리 발전된 곳에서 살고 있어도 여전히 이 사회의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허용(?)해 주고 있는 일은 뻔하다.⁵⁾ 리키나 다니엘은 그나마 노동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있지만, 이 두 여성에게는 그럴 수 있는 곳조차도 없이 내몰려 있다. 이렇게 생존만 남고 노동은 사라진 환경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다.

다니엘과 리키의 노동의 가치는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더욱 심하게 파괴된다. 리키를 자신의 택배회사에서 자영업 형태⁶⁾의 일을 하게 해 준 멀로니와 시청 복지과에서 다니엘에게 급여 신청을 받는 공무원들과 안전요원이 바로 그들이다. 멀로니는 자신의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 회사인지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그가 거기에 올라가게 된 데에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절대로 봐주지 않는 정신에 있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리키가 불의의 폭행사건으로

4) 이광택, “제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과 노동사회법에 미치는 영향,” 『사회법연구』 32(2017), 291.

5) 김효정,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노동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6(1)(2010), 5.

6) 이런 형식의 일은 택배 기사 외에 보험설계사, 야쿠르트아줌마 등이 있다. 특정 상품 야쿠르트를 언급하고 아줌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일을 하는 여성들을 낮춰 부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쿠르트아줌마’라는 말이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 말을 그대로 쓴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에 리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겪은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준다. 전지전능한 총(스캐너)의 가격은 무려 1천 파운드이다. 다른 잃어버린 물건들은 보험처리가 되지만, 여권 2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데, 그 가격은 무려 개당 250 파운드이다. 그리고 일을 못할 경우에는 대리기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하루에 100파운드이다. 그렇다. 멀로니는 이윤을 남기면 그뿐...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한편 다니엘이 찾아간 관공서의 사회복지사들은 기계적으로 일만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영국이지만 가장 빠르게 민영화를 선택한 결과 남은 것은 기계적인 일처리일 뿐이다. 이들의 업무는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처리하면 된다. 멀로니처럼 냉정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대우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스템이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멀로니와 관공서의 직원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대우한다. 참다못한 애비는 멀로니에게 “내 가족을 그만 괴롭혀. 엿이나 먹어라.”하고 소리친다. 다니엘은 검정색 페인트로 관공서 벽에 글을 쓴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굶어 죽기 전에 항소일 배정을 요구한다.”라고 적는다. 이 외침으로 다니엘은 질병수당 재심사를 받게 되지만, 너무 흥분된 나머지 재심사를 받는 날, 그 장소의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다. 병원 진료도 다 마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리키는 잠을 청한 후 아픈 몸을 이끌고 다음 날 이른 아침 다시 일을 하러 나간다. 어떤 시스템이 멀로니와 이 공무원들을 만든 것일까?

3. 국가와 공동체, 그리고 기본소득

리키와 다니엘에게 국가 혹은 공동체는 어떤 의미일까? 다니엘과 리키의 상황은 분명 다르다. 다니엘이 국가에게 받기를 원했던 질병수당(혹은 그 외 복지 수당)은 한 평생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던 그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실업수당을 거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리키 역시 그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다. 리키가 다니엘에게 일을 하시라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다니엘이 리키에게 쉬라고 조언하는 것도 의미 없다. 이러한 그들에게 과연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 다니엘은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질병수당이 거부당함으로 자신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일을 여러 번 경험했다. 여러 공공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으로 복지 프로그램에 접수하기 위해서 며칠을 보내다가 실패하고, 옆 집 사는 젊은이들의 도움으로 겨우 신청했을 때가 그런 경우이다. 질병수당을 받기 위해서 재심을 신청하는 동안 수입이 없어서 구직수당을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다가, 구직활동 증빙자료가 없어서 안 된다고 거부당한 순간이 또 다른 경우이다. 더 이상 존엄성이 훼손되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던 다니엘은 마침내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범죄자(?)가 되어 경찰서로

끌려간다. 이런 경험을 통해 다니엘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폭력 사건으로 심하게 다쳐서 간 공공병원은 엑스레이 진료 결과를 확인하는데 3시간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국가에 대해서 리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 이 순간 국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은 없을 테니,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뼈가 꺾여서 부러졌을 법한 심한 환자에게 자리에 앉아서 세 시간이나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폭력이 아닐까? 결국 그는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과연 국가는 어디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가? 경제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책임인가? 다니엘은 이것은 당연히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절대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 국가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일은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다니엘에게는 질병수당을 지급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동시에 국가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닌 노동의 가치를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국가는 리키가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국가는 케이티가 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케이티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요소들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수당을 제공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다.⁷⁾

두 편의 영화가 들려주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노동의 의미와 국가(공동체)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역설적이게도 아주 우연히 인류에게는 매우 의미가 큰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기본소득(혹은 그와 유사한 방식)이 시행된 것이다. 기본소득은 복지적인 차원의 실업수당, 구직수당이나 질병수당과는 다르다. 기본소득은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평소와 다른 경제활동 때문에 여러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공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은 아니고, 일회성 프로그램이지만,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매우 크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극심한 반대로 지급이 늦

7) 최인덕, 이정량. "기본소득 도입논의와 사회보험과의 역할 재설정: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사회복지교육』, 49(2020), 34-35.

게 되기는 했지만, 늦게나마 이런 일이 있음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기본소득은 일부 서구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았거나,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해 보기도 했지만,⁸⁾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많다. 그러나 ICT 기술이 발전하고, AI와 로봇, 사이보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학기술이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들을 급속하게 잠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자본력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은 기술을 활용하고 인간 노동을 최소화하여, 그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이에 과학기술 덕분에 발생하는 기업의 막대한 이윤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기본소득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포스트 시대와 교회의 역할

포스트-19(post-covid19) 시대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교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사회 노동 이슈와 관련하여 이러한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우만이 주장했던 ‘불확실성’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며,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자체에 대한 의미가 과거와는 다르게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된다. 우선, 이론적으로는 교회의 윤리적 가르침이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찬성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마태복음 20장 1~16절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오전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고,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킨 후에 동일한 품삯을 준 비유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한 시간만 일한 일꾼이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을 본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은 더 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하루의 품삯만 받은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기본소득의 기독교 윤리적 기초를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바로 기본소득의 개념과 연결되고 있다.⁹⁾

8) 2016년 6월 5일 스위스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77% 가량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9) 김동환,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44(2019), 60.

다음으로 교회가 고민해보아야 할 과제는 젊은이들을 위한 목회적 차원의 돌봄이다. 앞으로 더욱 가혹한 현실이 소위 말하는 오늘의 헬조선의 상황보다도 더욱 가혹한 일들이 지금의 젊은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취업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무의미해지고, 생존의 과제만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목회적 돌봄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선 변영신학의 허구성을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어야 하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해주고, 젊은이들이 공동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필자는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보았다. 우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사회적 자산임을 인정하고 사회에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젊은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터로 제공해 주면 가장 좋겠다. 이것은 공동 개념의 일하는 장소이다. 음악을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음향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실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소액의 신용카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무이자로 빌려준다(장발장은행-주빌리은행).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차원의 기본소득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목회적 활동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교회는 이미 시작된 위기보다도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5. 나가는 말

이상에서 두 편의 영화 속의 주인공 리키와 다니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노동의 의미는 무엇인지, 경제적 위기 가운데 삶을 계속하기 위한 기본소득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해보았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달려보아도 헛헛하고 맥 빠지는 환경에 체념하면서 속으로 다짐하는 것이 있다. “그래. 죽지 않을 만큼 돈 주고, 죽을 만큼 일 시키는 이 사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견뎌야 한다. 왜냐하면 난 아빠니까...” 나는 나의 노동의 가치를 가능해볼 어떤 여유도 없이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옆구리가 쑤셔도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염진통제 몇 장 붙이고 출근한다. 오늘 영화의 주인공 리키처럼... 소위 말하는 4차 산업 시대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매우 거창한 제안으로 글을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고작 내 삶의 넋두리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으니, 참으로 현실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나의 현실은 리키나 다니엘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김동환.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 44(2019), 49-82.

김효정.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노동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 26(1)(2010), 1-33.

리프킨, 제리미. 이영호 역. 『노동의 종말』 . 서울: 민음사, 1996, 2005.

바우만, 지그문트. 정일준 역. 『레트로토피아』 . 파주: 아르테, 2018.

이광택. “제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과 노동사회법에 미치는 영향.” 『사회법연구』 . 32(2017). 281-300.

최인덕, 이정량. “기본소득 도입논의와 사회보험과의 역할 재설정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사회복지교육』 . 49(2020), 31-55.

[발제2]

대중문화로 살펴본 언택트 시대 사회적 관계

김상덕 연구실장(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들어가며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파도가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덮쳤다. 그 영향은 실로 막대하며 아직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위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과 제2, 제3의 신종 바이러스의 침입과 전파 가능성도 높다. 한국 정부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은 이번 위기(재난/재해)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중 하나는 온라인 강의나 화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접촉이 늘어난 점을 꼽을 수 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고 부분적 휴업이나 모임 취소 등 좁은 공간에서 다중 접촉이 가능한 형태의 모임 등이 재택근무, 화상회의, 방구석 콘서트 등 랜선 미팅으로 대체되고 있다. 사회적 고립감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관계 양상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많은 일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짐에 따라 개인정보유출이나 사이버폭력, 피상적 관계 등 부정적인 영향들을 염려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은 과연 물리적 접촉이 제한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것인지 묻게 된다.

1.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공?

아마도 코로나19의 위기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한 표현이 있다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일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 간 접촉을 줄이고, 나아가 다중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휴교, 재택근무, 모임 취소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¹⁰⁾ 특별히 질병관리본부는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설정하

여 물리적 공간에서의 접촉과 감염을 줄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다. 초기 대응이 늦은 국가들의 경우, 좀 더 강력한 형태인 이동 금지령(lockdown)이 내려진 사례들도 많았다.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거리는 마치 유령 도시처럼 변하기도 하고, 사람을 피해 숨었던 동물들이 거리를 활보하기도 하는 이색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적어도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가히 종말론적인 이미지에 가까우며, 마치 ‘모든 인류가 바깥출입을 하지 않고 모든 관계를 온라인으로만 한다면 어떨까?’라는 극단적 질문이 잠시나마 현실화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용성에 대한 찬반의 논란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적용이 각 나라마다 다른 실정이지만 무엇보다 이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 또한 부족한 형편이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 마리아 반 케르크호베(Maria van Kerkhove) 신종질병 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표현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로 바꾸어 사용하길 제안한 바 있다.¹¹⁾ 그녀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계속 연결돼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사회적으로 고립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식에서의 비대면 연결(이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²⁾

사실 ‘사회적 거리’라는 표현에 대한 언급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자회견보다 일주일 앞서 한국의 학자에 의해 먼저 언급되었다. 김용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3월 13일 한겨레신문 칼럼을 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¹³⁾ 그는 두 표현 모두 공중보건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일반 시민들이 이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지역사회 감염’이란 지역사회‘가’ 감염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를 ‘통하여’ 감염이 된다는 것인지 모호한 지점이 있으며, ‘지역사회’를 감염에 취약하고 피해야 할 곳처럼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이로 인해 사회와 단절되어 개인적인 칩거를 유발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의심과 혐오의 시선으로 보게 될 수 있다는 염려를 내비쳤다.

10)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떡볶이] ‘사회적 거리두기’란?” (2020. 3. 11) 참조.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0168>

11)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 2019) Press Briefings (2020. 3. 20) 참조.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media-resources/press-briefings>

12) 강민경 (뉴스1, 2020. 3. 21), “WHO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
<https://www.news1.kr/articles/?3880868> 참조.

13) 김용찬 (한겨레, 2020. 3. 13), “[기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사회’ 유감” 참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32499.html>

스탠퍼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자밀 자키(Jamil Zaki)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대신 ‘원거리 관계 맺기’(distant socializing)를 주장한다. 뇌과학자 및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포옹과 같은 신체적 접촉은 우리 뇌에서 엔도르핀, 세로토닌, 옥시토신과 같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유발한다. 그런데 물리적 거리와 신체적 접촉이 줄어들면 정서적인 우울감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한다.¹⁴⁾ 따라서 비록 원거리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글은 물리적 접촉이 단절된 사회 속에서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소통을 해야 하는 오늘의 상황에 대하여 영화와 대중문화의 시선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미디어와 SNS를 주제로 한 영화들은 온라인 인간관계를 어떻게 상상하고 재현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상의 관계 속으로

대중문화는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때론 비판적으로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대중문화 속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관계 및 삶의 방식의 변화에 대해 다룬 영화들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영화 <A.I.>(2001), <Her(그녀)>(2013), 넷플릭스 영화 <나의 마더>(2019) 등은 인간과 인공지능 기계와의 관계를 다룬다. 영화 <토탈 리콜>(아이즈먼, 2012), <레디 플레이어 원>(스필버그, 2018) 등은 가상현실 세계를 소재로 한 공상과학(S.F.) 영화들이다. 이런 영화들은 실현 가능할 법한 기술을 배경으로 먼 미래의 모습을 상상으로 재현한다.

반면에,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비대면 소통이 집약적으로 증가했고 이런 소셜 미디어(SNS)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상대적으로 근거리의 미래를 상상하기에 좀 더 현실감을 높인다.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2010), <디스커넥트>(2012), <아메리칸 셰프>(2014), <소셜 포비아>(2014), <언프리티 소셜스타>(2017), <더 서클>(2017), <서치>(2018), <완벽한 타인>(2018), <Feels Good Man>(2020)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 영화들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회관계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몇 가지 주제들로 나누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14) Harmmet Kaur (CNN, 2020. 4. 18), "Forget 'social distancing.' The WHO prefers we call it 'physical distancing' because social connec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Accessed 2020년 5월 24일).
<https://edition.cnn.com/2020/04/15/world/social-distancing-language-change-trnd/index.html>

1) 실리적 관계의 욕구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2010년 개봉한 <소셜 네트워크>는 페이스북의 창설자 마크 주커버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살아있는 사람을 소재로 그것도 당시 20대 중반의 CEO를 소재로 영화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소셜 네트워크>는 주커버그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라기보다는 그가 만든 ‘페이스북’의 등장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영화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흥미롭게도 <소셜 네트워크> 개봉 이후로 이른바 소셜 미디어(SNS)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영화 <소셜 네트워크>가 말하는 페이스북의 설립 배경은 무엇인가? 미국 보스턴의 명문대학교인 하버드대학교에 재학 중인 주커버그는 뛰어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지만 연애에는 쩜병이다. 보스턴대학교(BU)에 다니는 여자친구에게 차인 후 학회에 만든 하버드대 여학생 미모 배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남학생들 사이에서 공전에 히트를 기록하는데 이는 그가 페이스북을 만드는 배경이 된다. 결국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의 탄생은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이 내면에 갖고 있던 욕망, 자신들이 원하는 여자들에게 접근하고 싶은 심리와 하버드라는 특별한 인맥을 확장하고 싶은 욕구 등을 실현시켜주는 도구로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주커버그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친구 신청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서툴렀던 그의 인간관계가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는 통할지 궁금증을 남긴 채 연린 결말로 끝이 난다.

2) 피상적이고 단절된 사회를 만드는

영화 <언프리티 소셜 스타>는 이런 SNS 상에서의 보여지는 이미지와 실제의 자아와의 간극 그리고 정서적 동경이나 낮은 자존감 등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이다. 특별히 주인공 잉그리드는 자신이 닳고 싶은 SNS 스타 테일러의 삶을 그대로 흉내 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긴 재산을 들고 무작정 테일러가 사는 L.A.로 이사한다. 우연을 가장하여 테일러에게 접근한 잉그리드는 테일러와 친구가 되고 꿈같은 시간들을 지내는 듯 보이지만, 행복도 잠시 자신의 거짓말이 들어나고 테일러와의 ‘랜선 우정’마저 깨지고 만다—마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결국 잉그리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SNS를 통해 그동안 자신의 거짓된 삶의 방식들과 미처 다루지 못한 속 얘기들을 털어놓는 것으로 작별인사를 한다. 다행히도 그녀의 자살시도는 미완의 실패로 끝나고 그나마 그녀 곁을 지켜주던 댄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이 영화의 엔딩은 침대에서 깨어난 잉그리드가 자신의 마지막 영상이 SNS 상에서 크게 회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다소 섬뜩한 결말로 끝이 난다.

온라인 플랫폼과 OTT 시장의 발전으로 TV 드라마도 영화 못지않은 퀄리티의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영국 드라마 <블랙 미러>는 기술 발전과 인간사회의 관계를 비판적인 시선에서 다루고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즌 3부터는 넷플릭스에서 제작 및 배급을 담당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제작을 맡으면서 내놓은 첫 번째 에피소드인 [추락]은 개인 SNS의 별 평점제도에 의해 그 사람의 신뢰도(자산)로 여겨지는 사회를 그린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별 평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의 삶보다 소셜 미디어 속 이미지 관리에 힘을 쏟는다. 온라인상의 이미지가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보이는 이미지로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

SNS 상에서의 자신을 꾸미고 보여지는 모습으로 평가받는 설정은 조금 확장해서 적용하면 한 개인의 사회적 배경(인종, 성별, 나이, 외모, 학력, 직업, 경제력 등)으로 평가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여기서 소셜 미디어라는 공간은 진정한 자신을 감추고 겉모습을 꾸밀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람들은 이 공간을 진실한 관계가 가능하다고 볼까? 한 설문조사에서 SNS 이용 태도와 관련한 질문에 67.4%가 ‘SNS에서는 모두 자신의 행복한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해’라고 응답한 반면, ‘SNS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문항에 응답한 비율은 8.2%에 그쳤다.¹⁵⁾ 소셜 미디어는 피상적이고 진실한 소통으로부터 단절된 사회관계를 만든다고 보는 시각이 담겨있는 것이다. 호주에서 모델 겸 소셜 인플루언서인 예세나 오닐은 2015년 당시 18살이었지만 인스타 팔로워 58만 명, 유튜브 구독자 26만 명을 이끄는 온라인 스타였다. 그러나 그녀는 돌연 자신의 모든 SNS 계정을 없애고 소셜 미디어 속 환상과 가공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화장이 없는 얼굴로 출연한 인터뷰에서 “소셜 미디어는 환상입니다. 모든 사진과 영상은 그저 ‘조회수’와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였죠.”라고 말하면서 그런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한다.¹⁶⁾ 소셜 미디어는 피상적이고 진정한 자아와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부정적 인식이 담겨있는 사례들이다.

3) 폭력적인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영화 속 소셜 미디어는 범죄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른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등장하였다. 영화 <디스커넥트>는 2012년에 개봉하였는데 <소셜 네트워크>가 개봉하고 2년 만에 등장한 영화이다. 페이스북이 2004년에 세상에 처음 나왔다는 점을 상기하면 꽤나 빠

15)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7 SNS 이용 및 피로증후군 관련 인식 조사” 참조.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580&code=0101&trendType=CKOREA>

16) 허술지 (KBS뉴스 2015. 11. 4) “[지금 세계는] SNS 스타 소녀의 충격 고백 ... “환상에서 나와라”” (Accessed 2020. 5. 26) URL <http://d.kbs.co.kr/news/view.do?ncd=3176442>

른 대응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상업적인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현대 사회의 변화 속도 자체가 빨라진 점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만큼 소셜 미디어 사용과 그에 대한 비판적 의식의 대중적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¹⁷⁾ 또한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사건”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는 소위 보안과 사생활 보호가 뛰어나다고 여겨지던 채팅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제2, 3의 유사범죄의 가능성이 높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JTBC 영화전문 토크쇼 <방구석1열> 106화는 사이버 범죄 특집을 편성하였는데 영화 <디스커넥트>(2012)와 한국영화 <소셜 포비아>(2014)를 다루었다.

영화 <디스커넥트>는 세 가지 다른 이야기를 엮어놓은 옴니버스 영화인데, 모두 소셜 미디어를 매개로 하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다. 신디는 어린 아들을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진다. 남편과의 대화마저 단절된 상황 속에서 그녀가 선택한 곳은 상처 받은 사람들을 위한 채팅 사이트였다. 그곳에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이곳은 채팅 사이트를 표방한 피싱 사이트였고 그녀는 전재산을 날리게 된다. 지방 방송국 기자인 니나는 성인사이트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인터뷰를 하고 특종을 만들지만, 이내 불법 취재에 대한 수사망에 오르게 되고 인터뷰에 응한 미성년자 카일은 곤경에 빠지게 된다. 평소 친구가 없던 벤에게 SNS(트위터)는 유일한 소통의 공간이다. 그런 그를 놀리기 위해 제이슨은 가짜 계정을 만들어 벤에게 접근하고 벤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속이고 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다. 벤의 나체사진을 얻게 된 제이슨은 그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벤은 수치심에 목숨을 끊는다. 이 영화를 연출한 알렉스 루빈 감독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로 잘 엮어내는데 그것은 바로 옆의 사람들(특히 가족)과 소통하려 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관계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초래한 (혹은 초래할 수 있는)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며 SNS에 의존하는 피상적인 관계를 ‘끊으라’(disconnect)고 주장한다.

일부 연예인들이 인터넷 상에서 악의적인 댓글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 <소셜 포비아>는 사이버 해킹과 인신공격과 협박 등의 사이버 문화가 실제 폭력과 살인사건으로 연계된 이야기를 통해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영화 <더 서클

17) 대중문화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지점들을 재현하는 장이다. 순수 예술의 경우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과정이나 이를 이전에는 표현하지 않은 형태로 표현하는 예술적 창의성을 추구한다. 대중문화가 이런 창의성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필수로 하지 않는다.

>(2017)은 기술발전과 더불어 모든 개인의 신상정보들이 공개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와 모든 것이 감시와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빅 브라더’ 사회를 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한다. 이렇게 영화/대중문화는 온라인 매체로 인한 부정적 사례들을 보여주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¹⁸⁾

4) 긍정적/도구적 재현의 예

그나마 영화 <아메리칸 셰프>(2014)는 소셜 미디어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유명 요리사인 칼 캐스퍼는 레스토랑에서 메뉴 결정권을 뺏긴 채 음식평론가에게 혹평을 받게 되고 이에 평론가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그 장면은 레스토랑에 있던 손님들에 의해 녹화되고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되고 또 리트윗 되어 퍼져간다. 하루아침에 해당 레스토랑은 물론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푸드 트럭에서 쿠바 샌드위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혼한 전 부인의 도움과 그간 바쁜 일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던 어린 아들과 그 여정을 같이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캐스퍼는 요리하는 기쁨을 찾게 되고 아들은 그 과정을 트위터에 소개한다. 그의 음식과 반전 이야기가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는 욕쟁이 요리사에서 다시 일약 유명 셰프가 되고, 그에게 혹평을 쏟았던 음식평론가마저 그를 찾아와 좋은 조건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받게 된다. 트위터는 사람을 순식간에 망치기도 하지만, 다시 일으키기도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영화 <서치>(2018)는 화면 구성을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폰 모니터 등으로만 연출하고 긴박하고 몰입감 높은 이야기 구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으로 꼽힌다. 영화 속에서 아내를 잃은 슬픔을 겪은 후 데이빗은 딸 마고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마고 또한 아빠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한다. 어느 날 마고에게 걸려온 부재중 전화 3통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데이빗은 딸이 실종된 사실을 알게 된다. 마고의 친구들에게 수소문해보지만 마고를 찾을 길이 없다. 영화 속에서 마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이 아닌 SNS를 통해 알게 된 친구들임을 알게 되고, 데이빗은 딸의 노트북과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을 통해 딸의 행방을 추적해 가며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이 영화에서 감독의 시선은 소셜 미디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재현한다기보다 딸이 현실을 도피해 온라인 친구를 찾아가는 통로, 그러다가 범죄에 이용당하

18)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부정적인 사례들이 영화적 소재로서 더 적합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쉽다는 점과 이는 대중들이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격정과 열려, 공익과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중적 사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게 되기도 하고, 또 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즉 온라인 미디어는 그저 도구로서 존재할 뿐이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부각되는 것은 아버지 데이빗과 딸 마고의 상처, 깨어진 관계, 후회와 회복을 위한 노력 등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영화 및 대중문화가 소셜 미디어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영화들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비판점도 존재한다. 일단 매우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사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화 속 비극들이 가능하지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 벌여질 수 있는 소수의 특수한 사례들의 부정적인 면만을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영화적 성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져 간다. SNS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사회변화의 모습에 무지와 두려움이 컸으며 그 결과 SNS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재현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SNS 이용과 환경에 적응하면서 SNS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대신 양가적 기능이 존재함을 받아들인다. 결국, SNS를 활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3. 수용자/사용자의 역할의 중요

대중문화는 이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인류 사회의 모든 것을 바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온라인 미디어와 같은 기술 환경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변화가 기술의 변화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매체(기술)결정론적인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매체 혹은 기술결정론이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이 소통의 방식을 결정 짓는다는 주장이다.¹⁹⁾ 예를 들어, 과거 공중전화를 사용하던 시기에는 사람들이 전화를 사용하려면 줄을 서야 했고 동전을 넉넉히 준비해야만 했다. 하지만 휴대폰이 발명되면서부터는 그런 풍경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매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진 않는다. 여전히 공중전화도 존재하고 집전화도 존재한다. 개인 휴대전화가 생기면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사람들은 전화보다 직접 만나서 이야

19) 김은미, 『연결된 개인의 탄생: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인간관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1-15쪽.

기하기를 좋아한다. 전화로는 알 수 없는 비언어적 소통들, 얼굴, 몸짓, 냄새, 분위기, 반응속도 등은 기술의 발전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user)이 결정하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용자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져 간다. 과거 청중(audience)은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역할에 그치곤 했다. 반면에 오늘날 뉴미디어 환경에선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동시에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 사용자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최근 ‘1일 1깡’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수년 전에 사라졌던 노래와 영상이 어떤 이유로 다시 회자가 되고 유행이 된다. 반면, 부정적 사례도 존재한다. 영화 <Feels Good Man>(2020)은 미국의 유명 만화 캐릭터인 페페(Pepe the Frog)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화하는지 과정을 보여준다. 페페가 ‘기분 조타’(Feels Good Man)고 말하는 이미지는 온라인상에서 많은 화제가 되고 이른바 ‘밈’(meme), 번역하면 ‘짤’, ‘유행’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된다. 문제는 페페의 이미지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겨나는 데서 시작한다. 특히 미국 내 극우적인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페페의 이미지를 백인우월주의와 혐오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공유하기 시작한다. 만화가는 청년 시절 소소한 우정의 순간들을 만화로 그렸지만, 그 의도와는 달리 온라인 유저들은 페페의 이미지에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시켰다. 작가의 의도나 모니터 속 페페보다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선택이 그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나가며: Untact 시대, 어떻게 Contact 할까?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즉 어떻게 물리적 접촉을 줄이면서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까? 미디어와 인간관계에 대한 그동안의 질문은 미디어 기술 환경이 바뀌면 인류 사회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묻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질문을 바꿔야 한다. 대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물어야 한다. 김정기(2019)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해도 인류가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인간의 특성을 소통의 욕구를 가진 존재로서 ‘소통하는 인간, 호모 커뮤니쿠스’로 정의한다.²⁰⁾ 인류는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그 소통의 범위를 확장해 갈 것이며 그 방향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20) 김정기, 『소통하는 인간, 호모 커뮤니쿠스』 (고양: 인북스, 2019), 16장. “나는 존재한다, 고로 링크한다”(340-362쪽) 참조.

소통의 주체인 우리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소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미디어 사회 속 관계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대중문화는 미디어로 인한 사회관계가 단절될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디어는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기도 연결시키기도 한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어서 문제인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로 김정미(2018)는 뉴미디어 시대 속 인간을 “연결된 개인”이라고 정의한다.²¹⁾ 기술은 그 연결을 확장하고 증폭시키는 도구이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미래 전망은 양가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물리적 접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아마도 그것은 무엇이 ‘적당한 사회적 거리’(appropriate social distance) 인가를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한, 나의 욕망을 위한 연결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거리로서의 소통 방식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홀로 외딴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공동체로서 존재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social interest)과 관계 맺기(distant socializing)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김용찬이 말하는 사회과학적 의미로서의 ‘사회적 거리’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과학 용어로서 ‘사회적 거리’는 한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들
(가령 계층적으로, 지역별로 구분되는 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상의 거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 자체가
집단 간의 분리를 유지하려는 우리 사회의 숨겨진 욕망들에
알리바이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노인들같이
사회적 도움이 늘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콜센터 직원들같이 물리적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확인시켜주는
아픈 말이기도 하다.²²⁾

코로나19 이후 보건당국과 지자체는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것은 (이

21) 김은미, 『연결된 개인의 탄생』, 230-236쪽.

22) 김용찬, “[기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사회’ 유감”.

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신체적 접촉 및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 거리두기’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져올 ‘사회적 관계’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비단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사회의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 환경 속에서 디지털 미디어와 스마트기기의 발전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초연결 시대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특징은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비대면 접촉을 하지 않고도 연결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 일정한 ‘사회적 연결’이 가능해진 세상을 말한다. 미디어로 인하여 연결의 확장되거나 연결의 단절되는 것을 염려하는 영화적 재현들도 결국 물리적 거리는 변화하여도 사회적 거리(연결)는 유지하길 바라는 의도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관계를 상상하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넘어 ‘적정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상상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발제3]

**코로나19 이후, 인간 존재의 성찰과 포스트휴머니즘
: 자연과 인공의 혼종적 존재로서 인간이 담지한 딜레마**
박일준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본고는 ‘포스트휴먼’을 인간을 극복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근대 휴머니즘의 인간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진정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작업으로 규정하면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는 곧 근대 이래 ‘휴머니즘적 유산’ 하의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래된 이분법적 편견 즉 자연 대 인공에 대한 편견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자연 즉 “Self-so-ing”(自然)은 자연 대 인공의 이분법을 갖고 있지 않다.

1. ‘우린’ 원래 사이보그였다! 혹은 ?

철학자 앤디 클라크(Andy Clark)는 2003년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이보그』(Natural-Born Cyborgs)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여기서 호모 사피엔스로서 인간 종은 처음부터 ‘자연적으로-태어난 사이보그’라고 선포하면서, ‘도구 사용자로서 인간’(homo faber)이라는 정의가 이미 자연과 인공의 혼종이 인간임을 밝혀주고 있음을 논구한다. 예를 들면, 맹인²³⁾이 지팡이를 가지고 두드리며 세상을 헤쳐 나아갈 때, 그/녀는 손으로 지팡이를 붙잡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손의 연장(extension)으로 사용해서 세계를 접촉하고 있다고 클라크는 표현한다. 이는 문학적 미사여구가 아니다. 클라크의 주장은 폴 바크-이-리타(Paul Bach-y-rita)의 감각 대응(sensory substitution) 연구와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 연구에 기반하여 도출된 것이다. 바크-이-리타는 선천적으로 시각기능이 결여된 맹인들을 대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의자 등

23) 시각장애인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은 그/녀의 구체적인 장애증상을 모호하게 해 버려서, 선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이를 표기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한다.

받이에 설치된 진동센서를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경험을 창출하는 실험을 시행하여, 1969년도 Nature에 게재하였다. 피실험자인 맹인이 카메라를 움직이면, 카메라는 포착된 대상의 모양과 움직임을 연결된 컴퓨터로 전송하고, 컴퓨터는 이를 등반이의 400개의 진동자극기로 구성된 센서로 보낸다. 그럼 피실험자는 포착된 대상의 모양과 움직임을 등반이의 진동신호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 장치를 통해 실험에 참여한 맹인 피실험자가 “글을 읽고, 얼굴과 음영을 알아보고, 어느 물건이 가깝고 먼 것인지 구별할 수 있게”²⁴⁾ 되었다는 사실이다. 애초 논문에는 이 현상을 ‘감각 대용’(sensory substitution) 개념으로 소개하지만, 후에 자신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몸을 완전히 회복하는 과정에서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 개념으로 확장한다. 바크-이-리타의 맹인실험에서 주목할 것은 그의 시각이 인공장치들을 통해 대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모습을 우리의 전통적인 인간상은 인간이 인공장치들을 보조적으로(auxiliary) 덧입고 있다고 묘사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명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시제 없는 동사 현재형 혹은 원형도 아니다. 인간은 ‘행위-함’(do-ing) 속에 창발 했다 명명하기를 거듭 반복한다. 그 사건적 창발의 비연속적 반복이 하나의 ‘명사’의 모습을 띄는 것은 그의 ‘행위자 네트워크’가 그 동일성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보존해 주기 때문이다. 일찍이, 철학자 부르노 라투르는 인간의 개념을 사물과 인간의 ‘행위자 연결망’(actor-network)으로 전환해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스마트폰을 외장하드로 사용하면, 더 이상 생물학적 두뇌 안에 정보를 암기해 넣고 사용하는 대신 주변의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SNS로 그리고 이메일로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특정의 형태에 박제된 ‘명사’가 아니라, 네트워크적 연결능력을 갖춘 행위항인 것이다. 그래서 나의 경계는 나의 네트워크의 경계와 더불어 확장되었다 수축되기를 반복하면서 명멸을 거듭한다.

클라크는 이를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이보그’라고 표현하면서, 인간과 기계의 혼종성을 “연장된 정신”(the extended mind) 개념으로 제시한다. 라투르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정신의 연장(extension)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데카르트 이래 사유와 연장의 이분법을 뒤집어 표현한 것이다.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에게 정신과 물질은 혹은 정신과 몸은 결코 혼용될 수 없는 전혀 다른 두 실체였다. 하지만 생물학적 두뇌는 몸의 감각을 매개로 외부 인공적 도구들과 장치들을 통해 연장되어 세계와 접촉한다. 그렇기에 ‘인간’을 규정하는데 더 이상 자연/인공의 경계선은 의미가 없어진다. 클라크는 알츠하이머 환자 오토의 이

24) 노먼 도이지, 『기적을 부르는 뇌: 뇌가소성 혁명이 일구어 낸 승리의 기록들』
 (The Brain That Changes Itself: Stories from Personal Triumph from the Frontiers of
 Brain Science), 김미선 역 (지호, 2008), 29.

야기를 가상적으로 설정하여 ‘연장된 정신’의 의미를 설명한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새로운 것들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오토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릴 때마다 갖고 다니는 공책에 적어 놓는다. 그리고 다음 날 자신이 일어났을 때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 예를 들어 냉장고 문 앞이나 벽에 붙여놓는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 비록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의 필체로 쓰인 노트를 보며, 자신의 일상을 수행한다. 여기서 오토의 공책은 그의 손상된 메모리 기능을 외적으로 대신하는 장치가 된 것이고, 노트는 오토의 두뇌를 연장하여, 그로 하여금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과 인공이 혼종(hybrid)화된 집단체로 삶을 영위해 나아간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는 생각보다 더 빨리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에서 일손의 동원이 쉽지 않아진 요즘, 로봇 시대가 농사 분야와 배송분야 등 농업-제조업-유통분야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²⁵⁾ 코로나19 사태가 고용시장 문제 때문에 머뭇거렸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을 정당화시켜주는 셈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대면적 만남이나 교류가 감소하고, 전 세계적 인적 교류와 교류가 거의 멈춘 시대에 디지털 네트워크는 정녕 우리의 ‘연장된 정신’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다. 그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는 사이보그 시대이기도 하다.

2. un-tact 시대 우리는 잘 적응하고 있다?

인터넷의 시대는 우리의 연장된 정신이 전혀 새로운 환경의 연결방식으로 진입하게 만들어 주었다. 적어도 디지털 네트워크의 출현 이전에 정신이 외부로 연장되는 주요 방식은 생물학적 몸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맹인의 지팡이도 오토의 공책도 몸의 감각을 매개로 인간의 두뇌와 세계를 coupling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네트워크가 정교해지고 빨라지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경을 직접 디지털 네트워크에 접속하는데 가까워지고 있다. 물론 영화 <엘리시움>에 등장하는 것처럼 몸에 칩을 설치하고 그것을 뇌신경과 직접 연결하여 외부 스펙트럼 장치를 움직이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대리 기사직을 수행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켜놓고 상시 대기 상태로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이들, 택배 배송차의 위치가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추적되는 시스템, 언제 업무지시가 떨어질지 몰라 늘 상시대기로 카톡을 주시하는 직장인들, 이들의 모습은 뇌신경이 네트워크에 직접 접속된 상태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제

25) 배정원 기자, “로봇이 잡초뽑고 청소하고 참고관리: ‘4년간 일어날 로봇시대가 4주만에,’” <중앙일보>, 2020년5월20일자. <https://news.v.daum.net/v/20200520000549770>

레미 리프킨은 『한계비용 제로사회』에서 사물 인터넷이 실현되어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 3D 프린팅 같은 네트워크 연결 기술을 통해 여분의 생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로'가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공생의 삶을 실현해 나아가는데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런데 네트워크 시대가 긍정적인 창조적 잠재성만 갖고 있을까? 이미 오래 전부터 대중문화 특히 SF 영화 매체는 이런 시대에 인간이 맞이할 위기와 혼동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오지 않았던가?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대, 이제 인공지능이 네트워크와 두뇌 사이의 인터페이스가 되어 접속을 만들어 나가는 시대의 모습이 영화 <Her>에 담겨 있다. 컴퓨터 OS에 인공지능이 장착되면서, 이제 네트워크와의 연결이나 컴퓨터 작업 그리고 이메일 작업 등을 인공지능에게 '구두로' 전달할 수 있는 시대. 사람들 간의 접속이 인공지능을 인터페이스로 작동할 수 있는 시대, 역설적으로 테오의 직업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대필해 주는 일종의 작가이다. 인공지능화된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메시지'는 사람의 생물학적 두뇌를 통해 마무리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디지털 네트워크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도, 최소한 그것들로 완전히 대체되지 않은 어떤 인간적인 측면을 영화는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화는 '인간적인 것'(the human)은 무엇일지를 묻는다.

영화 <Her>에서 주인공 테오는 인공지능 O.S.인 사만다와 점점 '사랑'을 느껴 간다. 하루 종일 그와 대화를 나누며 일상을 구성해 나아가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사만다이기 때문이다. 2014년 프랑스 알데바란 로보틱스와 공동 개발된 인공지능 감정로봇 'Pepper'는 인간의 감정들에 입력된 알고리즘들을 통해 반응하는 감정 로봇이다. 페퍼는 예를 들어, "슬퍼하고 있을 때 격려해 주거나,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는" 정도의 단순한 자동반응을 인간 사용자들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페퍼 스스로 내면에 어떤 인간의 감정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감정로봇을 구매하여 사용한 사람들은 "가족의 웃음꽃이 피고, 부부의 대화가 늘어가고, 어린이의 공부상대가 되거나, 홀로 사는 노인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등"²⁶⁾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un-tact 시대 비대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만남과 소통의 시대에 매우 큰 함의를 갖는다. 사피엔스 종이 과연 un-tact 접속으로 만남과 모임과 교류를 대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테오가 사만다에게 느끼는 감정은 인간의 감정 알고리즘이 사회적 동물 유기체로서의 호모 사피엔스에 맞게 진화해 왔다는 것과

26) 마쓰오 유타카, 『인공지능과 딥러닝: 인공지능이 불러올 산업구조의 변화와 혁신』, 박기원 역 (동아엠앤비, 2015), 21.

인간의 감정교류가 단지 생물학적 유기체들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감정적 애착을 느끼는 대상은 생물학적 몸을 지닌 존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네트워크 모임에 생각보다 우리가 잘 적응하고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디지털 네트워크로 온전히 다 환원될 수 없는 어떤 고유한 측면과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영화는 또한 표현한다.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인공지능으로서 사만다가 인간에 대하여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인간의 ‘성’(sexuality)이었다. 왜 인간은 성적 쾌락을 통해 감정을 교류해 나아가는 것일까? 사만다가 처리하는 빅데이터에 성의 생물학적 기능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주장하듯, 인간 유기체가 유전자의 복제와 번식을 위한 “운반체”에 불과하고, 인간의 성은 바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만다의 관점에서, 인간의 성적 행위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인간의 몸을 통해 체현되는 성은 사실 그 진화적 목적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지는 않는다. 인간의 성이 생식과 출산과정의 일부이긴 하지만, 인간은 성을 통해 관계로 나아가간다. 즉 ‘성-관계’란 단지 ‘성’으로만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장면에서 영화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의 관계는 ‘몸을 통한 교류’의 측면을 동반한다. 그렇다면 인간다움이란 몸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닐까? 그러한 친밀하고 살가운 관계가 접속으로 대치되었을 때, 테오는 사만다에게서 그런 감정적 유대를 대응적으로(substitution) 느꼈지만, 몸이 없는 사만다는 그런 육적인 존재인 인간과 결국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3. all-connected society의 네트워크 권력: 신자본주의의 성장동력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 2018년 개봉한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Ready Player One>은 현재 기호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가 확장되어갈 미래에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경고한다. 기호자본주의 시대, 이제 자본은 생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상 네트워크의 디지털 기호의 교환 과정 속에서 창출된다.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이다. 기계학습과 딥러닝 단계의 인공지능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장악한 이들은 끝없는 부를 창출하고, 그 외 다수의 사람들은 비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밀려나 사회안정보장이 결여된 불안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시대가 어찌면 인공지능과 네트워크의 시대인지도 모른다. 그런 시대의 현실적 소모가 영화 <미안해요 리키>에 담겨있다. 정규직이 사라지고, 사회보장보험과 의료보험 없이 건강-수수료만 지급받는 계약 일자리가 늘어가는 시대, 아무리 일해도 빚만 늘어가는 상황, 젊은이들은 이제 루

저들을 속아내는 시스템으로 전략한 교육을 포기한 채 길거리를 돌며 자신들만의 소리를 그라피티로 표현하는 시대의 초상 말이다. 택배 배달원이던 리키가 폭행강도를 당해 큰 부상을 입고도 일을 하지 않으면 물려야 하는 벌금 체계 때문에 “Sorry We Missed You”²⁷⁾라는 (자기가 사용하는) 통지문에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남겨놓고 일터로 향해야 했던 현실, 그 현실이 연장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희망을 포기하고, 가상현실 속 게임 속에서 살아가는 미래 시대가 <레디 플레이어 원>에 그려져 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가상현실 게임 속에서 도피처를 찾는 시대에도 누군가는 가상현실 속 게임에서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가상화폐 수수료를 챙겨 무지막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미래를 현실적으로 그려준다. 모두가 게임 속 아바타가 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실제 세계가 아니라 가상현실 속 세계에 귀속시키며, 현실을 부정하며 도피한다. <Ready Player One> 속에서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절망적인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가상현실 게임에 매달리는 상황과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가상 게임 장비 업그레이드를 부추겨 자본을 굶어모으려는 군상들을 그려주고 있다. 그러다 빚만 늘어 상환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데려다 착취하는 기업 IO는 그 제국이 결코 죽지 않을 것임을 예감한다.

하지만 영화는 “더 이상 규칙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 난 꿈꾸는 사람이야. 난 세계를 만들어!”(I don't want make any more rules. I'm a dreamer. I build the world)라는 메시지를 통해,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매여 살기에 저항하라는 목소리를 전한다.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는 디지털 네트워크가 자본주의와 권력의 세계화를 가능케 해주는 매체인 동시에 우리를 권력에 저항할 수 있게 해주는 매체라는 사실을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 말하자면 ‘네트워크’ 자체가 ‘해방’으로, 대면적 접촉이 권력으로 이분법적으로 상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가상 네트워크는 프로그램 된 네트워크로 기능할 때, 참여자들에게 준수할 규칙들을 부여함으로써 통제권을 발휘한다. 이는 네트워크가 담지한 억압과 착취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네트워크에서 남들처럼 앞서가려고 하는 대신 “뒤로 한번 가보”는, 그것도 “최대한 빨리”²⁸⁾ 역행해 보려는 시도들을 통해 네트워크는 “떼”(swarm)로 바뀔 수 있음을 영화는 보여주하고자 한다.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Franco ‘Bifo’ Berardi)는 네트워크가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으로 통제된 관계인 반면, “떼”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지만 거기에는 중앙통제장치가 있는 것이 아님을 구별하면서, “떼”의 해방적 운동의 가능성을 피력한다. 네트워

27) <미안해요 리키>의 영화 원제목이다. 택배 배달원이 방문했을 때, 수령자를 찾지 못하면 남겨놓는 메모지에 적힌 문구이다.

28) 영화 <Ready Player One>에서 이 말은 첫 번째 열쇠를 찾는 힌트였다.

크의 흐름 속에서 모두를 따라가는 방식이 아닌, 그에 역행하며 ‘과거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통해 게임을 이기려 하기 보다는 함께 놀려는 의지를 공유한다면²⁹⁾, 우리는 네트워크를 충분히 벗어나 다른 세계를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상의 세계와 실제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별하고, 이를 해방과 권력의 이분법으로 연결시킬 때, 네트워크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기제로 작용한다. 해방의 열쇠는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동무들을 만나는 공간으로 가상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에 달려있고,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현실을 바꾸어 갈 수 있음을 <Ready Player One>은 역설한다.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며 함께 놀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가상공간이어서만은 아니다. 그 가상공간이 착취와 억압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 되려면, 현실 세계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공존하는 세계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오아시스 게임 네트워크의 창설자 제임스 할러데이는 “As terrifying and painful as reality can be, it is also the only place you can get a decent meal. Reality is real!”이라고 말한다. 즉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세계를 통해 가상세계로 연장되어 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태어난 사이보그’로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우리는 네트워크 권력이 코로나19로 인해 발명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네트워크 권력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가능케 했던 기술적 토대였다. 따라서 비대면 모임들을 통해 네트워크의 접속량을 늘려가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권력 작용이 이미 배어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함께 공생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이는 곧 ‘개인’(individual) 개념에 기초한 근대의 인간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된(interconnected) 존재로 말이다.

4. 우리가 어떻게 인간일 수 있을까?

문제는 생물학적 기반의 사회적 유기체인 사피엔스가 디지털 네트워크에 뇌신경을 직접 접속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생물학적 두뇌가 디지털 네트워크의 정보량을 감당하기에 문제가 없느냐이다. 일찍이 베라르디는 ‘기호자본주의 시대’ 즉 우리의 만남이 접속(conjunction)에서 접속

29) 영화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열쇠를 찾는 힌트들이다.

(connection)으로 대치된 시대는 우리의 희망과 미래가 사라진 시대가 되었고, 정신적 질병의 증가와 총기난사와 테러리즘의 발흥이 기호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임을 주장한다. 디지털 접속을 통한 노동으로 우리의 뇌신경에 과부하가 걸려 탈진이 일상화된 시대, 우리의 생물학적 알고리즘이 가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인간다움도 끝이 난다는 것을 베라르디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탈진한 영혼은 휴식과 위로를 갈구하지만, 일하면 일할수록 빛만 더 늘어가는 삶의 구조는 심을 허락하지 않고, 다시 영혼은 가상세계에서 대리만족을 취하거나 약물류로 가상의 정신 상태를 창출한다. 2018년 개봉한 영화 <Zoe>는 프록시 시대의 영혼이 사랑을 구하기 위해 ‘베니솔’이라는 화학약물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과도한 (정신)노동으로 탈진된 영혼이 사랑을 로봇 매춘부에서 찾는 모습 속에 ‘연장된 정신’이 네트워크 상의 가상세계로 연장되었을 때 반드시 더 좋은 세계가 펼쳐지는 것은 아님이 드러난다. 로봇 사창가의 로봇 매춘부는 이렇게 말 한다: ‘여기를 찾아오는 남자가 오로지 몸만을 원하는 건 아니다. 그들은 "the way you make them feel"을 위해서 찾아온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위로받고 싶은 관계를 향한 욕망, 하지만 이 시대의 노동구조는 우리에게 그런 위로의 시간을 용납하지 않는다. 다친 몸을 이끌고 배달트럭을 몰고 일터로 향해야 했던 리키처럼 말이다.

영화 <Zoe>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일 수 있는가를 묻는다. 감정마저 디지털 알고리즘으로 처리해서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그것을 인공지능에 프로그래밍해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 가장 인간적인 감정인 사랑조차 ‘베니솔’을 통해 가상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인간일 수 있는가? 이를 가장 선명하게 예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과 사랑’의 관계일 것이다. 영화 <Her>에서 인간의 성행위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던 사만다처럼, 조는 인간의 사랑 감정과 성행위 사이의 관계가 궁금했다. 사랑의 관계는 성-관계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들의 사랑 관계는 늘 성에서 관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성의 감각적 충족에 그치고 말 경우가 있다. 성을 결여한 관계는 ‘사랑’이라는 특별한 관계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마치 근대 철학의 이성과 감정의 이분법처럼 말이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에서 ‘성’을 인간다움의 한 요소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번역하자면, 인간은 ‘몸’을 넘어서 존재할 수 없다는 메시지일 것이다. 즉 인간의 삶과 몸은 정신적 작용을 위한 매체(medium)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몸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통해 정신은 세계와 coupling을 맺고,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의 행위 주체성은 일어난다(enact)는 것이다.

5. inter-carnation의 상상력

기독교는 성육신(incarnation)을 말한다.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과 똑같이 무기력한 인간이 되어 이 세계로 내려와서 살다,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이다. 부활은 그를 믿는 공동체의 고백이지만, 그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 중 부활한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나 확인은 없었고, 가능하지도 않았다. 그(분)은 왜 자신보다 못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었을까? 자신이 구원한 인간들을 자신만큼은 아니더라도 슈퍼휴먼 정도로 만들어 스스로 구원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그냥 하늘나라로 올리시면 안 되었나? 아마도 그분의 목적은 자신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 혹은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오히려 그는 고통 받는 자들의 한 복판으로 내려와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본래 이름이었다: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사이보그적 능력은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이미 지니고 있음을 그리고 그 형상의 능력은 그저 고통 받는 인간들하고만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공사물들과 인간-아닌 존재들과 더불어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우리의 몸은 그들과 교류하는 ‘인터페이스’이다. 이 생물학적 인터페이스 능력이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네트워크와 접속하여 더욱더 넓게 연장될 수 있음을 지난 몇 달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기술적 변화들에 따른 우리의 적응하는 모습들은 시대적으로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인간’이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공동체’라는 점에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가 고통받고 있는 이들 한가운데로 내려와 그들과 함께 있었듯, 그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 또한 고통받고 있는 이들 한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지녀야 하고,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지 않을까?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이보그’(natural-born cyborg)라는 클라크의 인간개념은 이제 우리가 ‘몸’을 자연/인공의 이분법을 넘어 새롭게 개념화할 필요를 전하고 있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 이런 대사가 등장 한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물음을 멈추지 마라. 그 물음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다: dubito, ergo sum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는 어떻게 인간일 수 있을까?

질의응답

백광훈 원장: 포럼 발제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언택트(Un-tact; 비대면)하게 만드는 기술의 변화, 네트워크의 변화 속에서도 인간은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 네트워크에 제한되고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에 반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낼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지금의 삶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지금 오픈채팅으로 질문을 받고 있는데 성신형 교수님께 질문이 와 있네요.

1. 기본소득을 경제 정책으로 바라보시는지, 복지 정책으로 바라보시는지? 코로나19가 비록 일시적인 이벤트라 할지라도, 한 사건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타격에 대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복지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의 공평과 정의라는 관점으로 보면, 더 어려운 국민들 중심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신형 교수: 복지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복지에 두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보편적 차원과 선별적 차원의 복지. 일괄지급과 선택지급의 차이보다는 그 나라가 “복지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의 개념으로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복지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면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차등을 두고 복지정책을 하기 보다는 제도적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포스트휴먼 시대에 기계가 인간을 대체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이 줄어들게 되면,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그것이 개인의 기본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백광훈 원장: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가의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잖아요? 경제를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때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기본소득이라는 테제가 굉장히 래디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접착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의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들이 중요한 희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상덕 박사님은 오늘날 인터넷 기술발전이 소통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는 ‘매체결정론’보다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그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대중이 나름대로 긍정적이면서 저항적으로 온라인 기술을 사용한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김상덕 실장: 「새로운 대중의 탄생」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대 사회의 굵직한 사건들, 2016년 한국의 촛불 집회나 2019년 홍콩 시위 등, SNS 시대이자 모든 것이 개인화된 지금도 대중은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온라인 독점 시대가 되면서 개개인을 단절시킨다는 전제들도 있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정신이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디서 모이고 어떻게 힘을 합쳤는지 볼 수 있었잖아요. 영화들이 경계했듯이 기술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소통이 단절되며 정보가 불평등한 시대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의심하고 질문하며 사고한다면 인터넷 기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백광훈 원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른바 온라인 예배가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가 만족을 줄 수 없으니까 한시적인 것이고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세대들은 오히려 온라인이라는 감각이 어려서부터 훈련된 세대로 자라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기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미디어가 하나의 감각의 연장으로 사용되고, 자신을 표현하며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라는 것을 기성세대가 인정하고, 소통의 창구로 끌어들이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준 교수님, 앞으로 도래할 포스트휴먼 사회를 맞이할 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들이 있다면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일준 교수: 우리가 기존에 당연히 생각해온 ‘인간’ 혹은 ‘민족’이나 ‘국가’라는 개념의 발원은 근대라는 시대입니다. 근대 이전에 인간이라는 단어는 있었어도 그와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대 시대의 ‘인간’은 개체로 존재하며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개념이 오늘날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쪽으로 남용되고 있어요. 포스트 휴먼 시대는, 인간이 기계가 되는 시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근대적 인간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포스트 휴먼 시대에 당면한 여러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사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예요. 개체보다는 공생인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해요. 근대 시대의 종교인 개신교가 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 어떻게 공생의 구원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개신교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

에 근대의 개체와 인권을 강조하는 인간의 개념보다는 연대성을 확보하는 것이 포스트 휴먼 시대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광훈 원장: 결국은 근대가 얘기하고 있는 휴머니즘,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분절시키는 개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포스트 휴머니즘이 결국은 연장된 근대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래가 유토피아적인 게 아니라 디스토피아적인 것이고요. 그렇기에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는 것이 포스트휴먼 사회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 온라인 예배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배에서 임재의 경험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간과 공간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온라인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김상덕 실장: 비록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에서 느낄 수 있는 비언어적인 형태의 분위기들이 그대로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임재와 같은 경험들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대면적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신형 교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임재는 당연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꼭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만 성령이 오신다는 생각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질문 보다 진정한 예배를 다시 한 번 성찰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박일준 교수: 온라인 시대는 네트워크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와 더불어서 '연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예배라는 게,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에서 연속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몸이 연장되는 것이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온라인 예배의 개념이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3. 교회는 오고 싶은데 주말에도 근무하는 노동자와 같이 물리적 출석이 자유롭지 않은 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김상덕 실장: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교회는 주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면, 혹은 미디어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 같아요. 서비스나 기술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발전될 텐데, 그런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예배를 아무 때나 드려도 된다고 업로드 한다면, 교회 안에서 물리적으로 맺을 수 있는 관계 방식의 부재가 아쉬운 거죠.

김지혜 목사: 저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돌봄 노동’이 더욱 요청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에 비해 돌봄 노동이 저평가되는 것이 현실인 듯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정의 몫인 거예요.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나 <미안해요, 리키>에서 공적 시스템의 부재 혹은 한계를 사적인 공동체나 연대들,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웃, 가족들이 메우는 부분들을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또 다른 시스템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또 오늘 포럼을 교회와 연결시켜 생각하면, 온라인 상에서의 예배 혹은 교회가 과연 공동체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나아가 교회에 헌신하고 세상 가운데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성장과 제자 삼기를 디지털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백광훈 원장: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겸 마지막 발언으로 한마디씩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덕 실장: 저는 교회 못나오는 청년들이나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나 사회 구조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예배라는 종교적 서비스를 다른 날 혹은 사 이버 공간에서 하나 더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신형 교수: 요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윤리적 실천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시작했을 때 인간의 의미를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박일준 교수: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아직 생물유기체이니까요. 돌봄과 양육 문제도 우리는 아직 인공지능의 힘에 맡길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도 기술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아마도 이 시대에 교회의 의미와 접촉의 역할을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히 네트워킹화 되서 몸을 버리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접촉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접촉의 의미가 피부가 직접 맞는 의미가 아니라, 연장된 의미로 다른 매개체를 이용한 접촉도 접촉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광훈 원장: 결국 어떤 것이든 다양한 방식의 컨택트적 양식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포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신 분들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문화선교연구원과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시네포럼 <Untact 시대, Contact하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필름포럼 소개



영화

좋은영화관 필름포럼

필름포럼은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운영하는 예술영화관입니다. 기독교 신앙(Christianity)을 기반으로 삼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영화를 선정하여 2개의 영화관(90석, 52석)에서 상영하며, '사랑'이라는 큰 명제 아래 그 의미를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술, 독립, 기독교 영화의 발굴과 상영을 추구합니다.



아카데미

재움이 필요한 순간, 필름포럼 아카데미

필름포럼 아카데미는 인문학, 영화, 영상, 예술, 기독교 영성 관련 강좌를 통해 치유와 회복, 배움을 통한 성장, 내면의 성숙,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갈 수 있는 성품과 재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영화관



외부에서 영화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교회 및 단체에 열려 있습니다. 원하시는 장소에서 영화상영을 원할 경우 영화제 전문 영사팀이 직접 찾아가 상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페



갤러리

필름포럼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소그룹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카페와 세미나실을 운영하며, 갤러리에서 회화 및 사진전시회가 열리는 소통과 나눔의 장입니다.

| 비용 문의 및 신청 |

영화관·카페·세미나실 대관 일정과 비용 및 찾아가는 영화관의 비용문의 및 서비스 신청은 필름포럼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 & 필름포럼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27 하늬솔빌딩A B1
02-363-2537, www.filmforum.kr (필름포럼), www.siaff.kr(서울국제사랑영화제)
영화제 후원계좌 : 국민은행 807501-04-213864 ((사) 필레마)

**문화선교
연구원
소개**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31)

문화선교연구원은 다원주의와 소비문화적인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독교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과 선교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은 교회의 문화선교를 돕고, 한국 사회문화 동향과 기독교 문화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와 방향을 제시, 기독교 문화 담론을 이루어갑니다. 교회와 문화계 현장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나라의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연구 대중문화 연구신서 발간 프로젝트

시대분석과 미래연구 시의성 있는 이슈와 대중문화 키워드, 문화선교트렌드 분석, 미래교회 연구
연구-현장 연계 문화목회현장 발굴(문화선교리포트),
 처치플랜딩 패러다임 제시
연구 성과 공유 웹진 운영, 연구 모임, 미디어
 사역(문화선교연구신서, 영상)

교육 다음세대 프로젝트 Gen Z

다음세대 선교전략 영화묵상교재 무비독가이드, 대중문화 가이드북, 문화 이카데미 개발
실천 소통 프로젝트, 도심 속 문화수련회, 세대 간 프로그램 개발
소통 Z세대 연구보고서 출간, 다음세대 문화선교 전략 제언, 교회교육 지원

창조 기독교문화 플랫폼

문화선교기지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기독교영화전용관
 필름포럼, 필름포럼 이카데미
콘텐츠 플랫폼 형성 연구자료, 뮤지컬 콘텐츠, 기독교영상콘텐츠, SNS를 통한 소통
문화 플랫폼 확대 교회-기독교NGO·NPO-기독교학생운동 및 문화운동 그룹 연계



☑ 문화목회 연구 문화신학적 이론 정립, 문화분석과 대안 제시
 ☑ 다음세대 문화선교 다음세대를 위한 문화선교 전략 개발
 ☑ 문화플랫폼 창조적 문화선교 네트워크

문화선교연구원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27, 하늬솔빌딩A B1
 02-743-2535, www.cricum.org, www.facebook.com/cricumorg, cricumorg@naver.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917737-01-002035 (문화선교연구원)



17th Seoul International
Agape Film Festival
서울국제사랑영화제
2-7 June, 2020